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 휴스

2000년

# 차례

개정판에부쳐	3
서문: 폐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	4
1 장: 폐미니즘정치 — 우리가서있는곳	5
2 장: 의식화 — 꾸준한회심回心	7
3 장: 자매애는여전히강력하다	9
4 장: 비판의식을키우기위한폐미니즘교육	11
5 장: 우리의몸, 우리자신 — 임신선택권	13
6 장: 내면의아름다움과외모의아름다움	15
7 장: 폐미니즘계급투쟁	17
8 장: 글로벌폐미니즘	20
9 장: 일터의여자들	21
10 장: 인종과젠더	23
11 장: 폭력종식하기	25
12 장: 폐미니즘남성성	27
13 장: 폐미니스트부모되기	29
14 장: 결혼과동반자관계를해방하기	31
15 장: 폐미니즘성정치 — 상호자유의윤리학	33
16 장: 완전한행복 — 레즈비어니즘과폐미니즘	36
17 장: 다시사랑하기위하여 — 폐미니즘의심장	38
18 장: 폐미니즘적영성	40
19 장: 폐미니즘의미래	42

## 개정판에부쳐

40년 넘게 페미니즘이론과 실천을 연구해온 나는, 페미니즘 운동에 헌신하고 가부장제에도 전해변화를 일궈내기 위해 해를 거듭 할 수록 더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요즘 들어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여성의 든 남성이든, 변화를 위해 늘 노력하고 성차별주의 sexism 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페미니즘 투쟁이 선사한 해방의 기쁨을 나누려 애쓰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페미니즘 운동을 대중화하는 일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스무 살의 나는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들기로 다짐했고, 이에 페미니즘이론과 실천이 지닌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 즉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나는 주로 페미니즘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 특히 흑인 친구들을 위해 글을 썼다. 하지만 대체로 학생 시절이나 강단에 선 후에야 그런 글들을 썼음을 고려하면 내 글이 늘 많은 독자를 만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독자들이 ‘이런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무엇보다 서점에서 책을 실제로 보거나 서평을 읽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반체제적이고 급진적인 책일 수록 주류의 서평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점에서는 운 좋게도, 내 책들은 서평을 받는 일은 드물었지만 독자들을 만날 수는 있었다. 확실히, 강의교재로 채택되니 주류의 눈에는 들지 않았어도 독자들이 생겨났다. 물론 “이 책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라고 독자가 찬사를 보낼 만한 책을 쓰면 입소문 때문에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다. 페미니즘이론서를 써온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독자들이 여전히 내 책을 찾으며 비판의식을 키우는 교재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든다.

지난 수년간 페미니즘이론과 문화비평이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목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여온 만큼, 학술적 인논의의 공간은 페미니즘이 전파되는 기본적인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경향 덕분에 페미니즘 적사고와 실천이 지닌 의미와 힘을 배울 기회가 더 생겼으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는 페미니즘 운동에 더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는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학창 시절 받은 여성 학수업과 거기서 읽은 책이나를 바꿔놓아 페미니즘에 대해 완전히 각성하게 됐다. 그러나 딸이 여섯이고 아들이 하나인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엄마와 형제자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나 처럼 페미니즘 사고에도 취되기를 원했다. 이 책의 표지 속 두여자는 바로 나와 내가 여대 1학년 시절에 사귄 친구에 이프릴이다. 노동계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나누며 가까워진 우리 사이에 인종 장벽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사진 속 우리는 스무 살을 코앞에 둔 십대 후반인 었다. 내가 페미니즘에 흠뻑 빠지면서에 이프릴도 함께 페미니즘 컨퍼런스에 참가해 페미니즘 전반에 대해 배웠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페미니즘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매애는 강력하다 sister is powerful’는 진리를 깨우쳤다.

무엇을 쓸지고 민스러울 때면 늘 구체적인 경험에서 글감을 찾아내 인생은 물론 주변 남성과 여성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써내려갔다. 오랫동안 학교 안팎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페미니즘의 이론과 시천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여성 학수업을 통해 비판의식을 키운 학생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고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페미니즘이론이 “너무 학문적”이라거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투성이”라는 불만을 듣다보니, 어떻게든 모두에게 페미니즘 정치를 이해 시킬 수 없다면 이 운동은 실패한 것이다 싶었다. 나는 가호호 찾았다니며 페미니즘 적사고가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람들에게 페미니즘 적사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페미니즘 정치를 받아들이도록 구슬릴 만한 쉬운 책을 써보면 어떨까.

단 한번도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들만의 것이라고도, 그래야만 한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성의 든 남성이든, 소녀든 소년이든 모두가 페미니즘에 한 발 더다가 오게 설득하지 못하면 페미니즘 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했다. 나는 내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적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집에 가져가서 친척과 부모님, 조부모님, 교회 신자들과 함께 읽을 만한 책을 쓸 작정이라고 말하곤 했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은 이 책의 성격을 한 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구호다. 명료하고, 간결하고, 쉽게 읽히는 책. 그런 점에서 내 꿈이 실현된 책이다. 이 책이야 말로 우리 모두를 페미니즘에 한 발 더 가까이 초대하기 때문이다.

## 서문: 폐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

어디서든 내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작가이며 폐미니즘 사상가, 문화비평가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여러 매체에 영화나 대중문화에 담긴 메시지를 분석한 글을 기고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한다. 누구나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잡지를 뒤적이고, 그 과정에서 읽어낸 메시지와 직접 본 이미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갖는다. 그렇기에 내가 만나는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 문화비평가라거나 글쓰기에 열정을 품고 있다는 말을 이해시키기는 쉽다 (많은 이들이 글을 쓰고 싶어하고 실제로 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폐미니즘 사상가라는 지점에 이르면 질문이 뚜렷해진다. 대신 사람들은 폐미니즘의 폐해와 나쁜 폐미니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얼마나 남자를 혐오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만물의 본성, 즉 신을 거스르는지에 대해, ‘그들’은 전부 레즈비언이고, ‘그들’이 일자리를 몽땅 채가는 바람에 백인 남자들이 기회를 빼앗겨 얼마나 살기 어려워졌는지 아느냐고 늘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폐미니즘에 관해 어떤 책이나 잡지를 읽어봤는가. 폐미니즘 담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폐미니즘 활동가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면, 그들이 아는 폐미니즘은 십중팔구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일 뿐이며 폐미니즘 운동이 실제로 무엇인지 거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개 사람들은 폐미니즘하면 남자처럼 되고 싶은 한 무리의 성난 여자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폐미니즘에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다시 말해 여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폐미니즘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면 그들은 기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이야기를 마칠 즈음 곧장 이런 반응을 보인다. 당신은 남성을 혐오하고 늘 화가나 있는 ‘진짜’ 폐미니스트 같지 않다고, 당신은 다른 것 같다고 말이다. 이에 나는 나야 말로 누구보다 진하고 급진적인 폐미니스트이며, 폐미니즘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덮어놓고 짐작했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상대에게 추천할 만한 얇은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폐미니즘이 뭔지, 폐미니즘 운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권하게 말이다. 그 순간에 축약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잘 읽히는 책이 손에 쥐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령부득한 학술 용어만 가득한 두껍고 난해한 책이 아니라, 간결하고 명확해서 이해되는 부분만 대충 건너뛰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쉬운 책 말이다. 폐미니즘 사상과 폐미니즘 정치, 그리고 그 실천이 내 인생을 바꾼 순간부터 나는 그런 책을 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을 권해내 정치적 삶의 근본인 폐미니즘의 대의와 내가 깊이 신봉하는 이 폐미니즘 정치에 대해 더 잘 이해시키고 싶었다.

‘폐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사람들이 공포나 환상에 비롯하지 않은 해답을 얻기 바랐다. 사람들이 ‘폐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라는 간결한 정의를 읽고 또 읽어서 그 의미를 깨우치기를 바랐다. 나는 이런식으로 폐미니즘을 정의하는 게 마음에 들어 10년도 더 전에 쓴 『폐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sup>1</sup>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정리했다. 폐미니즘 운동이 남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박는 정의라 마음에 든다. 또한 이 정의는 성차별주의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렇게 쪽집어서 말해주는 덕에 여자는 남자든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주의 적사고와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게끔 사회화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사회화 때문에 여자도 남자만큼이나 성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남성 중심주의를 두둔하거나 정당화한다기보다 폐미니즘 사상가들이 이 운동을 단순히 남녀 대립 구도로 인식하는 건 순진하고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제도화된 성차별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가부장제를 철폐하기 위해 우리 의사고 방식과 정신부터 바꾸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성차별주의 적사고와 행동을 버리고 그 자리에 폐미니즘 적사고와 행동을 들이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성차별주의를 영구화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가부장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므로 여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전제의 수혜자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남자들은 가부장제의 열매를 모두 쟁기는 대신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여성은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도록 요구받는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sup>1</sup> 원제는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 로 원서 초판은 1984년에 출간됐다. 한국어판은 2010년 모티브북에서 출간되었다. -역자주

삶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느끼는 증오와 공포, 여성 향한 남성의 폭력 모두를 혼란스러워 한다. 심지어 이런 폭력을 영구화하는 남자들조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작 손에쥔 이득을 포기하려 들지는 않는다. 그들은 가부장제가 다른 무언가로 변하면 자신에게 친숙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라불안해 한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으로는 남성 중심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저항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 남자들은 몇 번이고 내게 페미니스트들이 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능력을 갖췄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페미니즘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이상 페미니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그들 역시 가부장제의 속박에서 풀려나리라는 희망을 보게 될 테니 말이다.

이런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20년 넘게 생각만 하다가 결국 이 얇은 안내서를 직접 쓰며 염두에 둔 독자가 바로 앞서 언급한 젊고 늙은 남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다. 이런 책을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았기에 결국 국내가 쓸 수 밖에 없었다. 매일 같이 반대 페미니즘의 역풍이 휘몰아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증오하고 그에 저항하라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책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 없다. 페미니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쉽고 짧은 입문서가 쏟아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관한 글이나 전문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책도 페미니즘 정치를 대변하는 열정에 찬 또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해 질 것이다. 이 세상에 페미니즘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옥외 광고판을 세워야 하고, 잡지에도 광고를 실어야 하며, 버스와 지하철, 기차에서도 광고해야 한다. 텔레비전으로 우리 의메시지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 페미니즘을 널리 알려야 하고, 이 운동이 모두의 머리에 가닿고 마음을 울리게 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미 우리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다면 긍정적인 측면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남성 중심주의에 저항하고, 가부장제 사고에 반기를 들었을 때 (또한 내 삶에서 가장 강하게 가부장제를 드러내는 목소리였던 어머니와 맞섰을 때) 나는 자살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와 내 자리를 찾고 싶었던 십대였다. 내겐 단단히 딛고 설 수 있는, 평등과 정의의 토대가 되어 줄 페미니즘이 필요했다. 엄마는 뒤늦게 페미니즘에 눈을 뜨셨다. 엄마는 나를 비롯해 당신의 딸들 (우리는 모두 여섯이다) 이 페미니즘 정치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보셨으며,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보셨다. 내가 이 책에서 당신과, 나아가 모두와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 가능성과 희망이다.

아무도 지배받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여자와 남자가 무조건 똑같거나 평등한 곳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틀을 만드는 기준인 세상 말이다. 누구나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평화와 가능성의 세상에서 산다고 상상해보라. 페미니즘 혁명만으로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인종 차별과 계급 엘리트주의, 제국주의도 함께 종식해야 한다. 하지만 페미니즘 혁명을 통해, 우리는 여자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완전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자유와 정의를 향한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다가 오라. 페미니즘이 당신과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지켜보라. 더 가까이다가 오라. 그러면 더 잘 보일 것이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다.

## 1 장: 페미니즘 정치 — 우리가 서 있는 곳

페미니즘이란 간단히 말해서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 10년도 더 전에 쓴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에서 페미니즘을 이렇게 정의 했었다. 그때만해도 누구나 이렇게 페미니즘을 정의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 나는 인정의 가짜 마음에 들었는데, 남성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성차별주의를 문제로 지목하면 상황의 본질을 곧장 파고들게 된다. 실제로 페미니즘을 이렇게 정의하면 성차별주의를 공고히 하는 주체가 여성인 든 남성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 없이 성차별주의 적 사고와 행동이 문제라는 걸 일깨워줄 수 있다. 게다가 이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성차별주의에 대한 이해 까지 포함할 정도로 포괄적 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정의는 일종의 열린 결말과도 같다. 페미니즘을 이해하려면 성차별주의부터 알아야 한다고 인정의는 시사하고 있다.

페미니즘 정치의 옹호자라면 다 알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성차별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설사 안다고 해도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대중은 페미니즘을 항상 남성과 동등해 지려는 여성들에 관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반대 남성주의로 여기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사람들이 주로 가부장제적인 대중 매체로부터 페미

니즘에 대한 정보를 얻는 현실에서 폐미니즘 정치에 관한 오해가 비롯된다. 대개 그들은 주로 젠더평등에 헌신하는 여성들의 폐미니즘을 가장 많이 접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여성과 남성이 가사 노동과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의 폐미니즘 말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들은 대개 백인이고 물질적으로 특권층에 속한다. 대중 매체에서 접한 바에 따르면, 여성 해방 운동은 임신 중단을 선택할 자유, 레즈비언 일자리, 성 폭력과 가정 폭력에 항거할 자유를 위해 싸운다. 많은 이들이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직장 내 젠더평등,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리스도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신이 정한 바에 따라 가정에서는 여성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취직을 하는 여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 내에서 실질적 가장인 여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미국 사람들은 가정에 성인 남성이 있건 없건 남성 중심주의 논리가 고스란히 유지되는 가정 생활을 이상적 인 것으로 간주한다. 폐미니즘 운동이 반 남성주의라는 그릇된 인식은 모든 여성의 공간은 필연적으로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끼어들여지지 않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생각과 결부되었다. 심지어 폐미니즘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을 비롯해 수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믿었다.

남성 중심주의에 분노로 대항했던 초기 폐미니즘 활동가들 사이에 반 남성 정서가 팽배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성들이 해방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남성 중심주의라는 불의를 향한 분노였으나 말이다. (다수 백인이었던) 초기 폐미니스트 활동가들은 대부분 폐미니즘 운동에 뛰어들기 전 남성들과 함께 계급 주의와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운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정작 동료 여성들은 무시했고, 이런 환경에서 여성은 남성 중심주의의 본성에 대해 빼저리게 깨닫게 됐다. 사회주의를 위해 싸운 백인 여성, 인권과 흑인 해방을 위해 싸운 흑인 여성, 원주민의 권리와 원주민 여성, 이들이 사실만은 확실히 알게 됐다. 남성들은 자기네가 직접 운동을 이끌고 여성들은 잡자코 뒤따라 오기를 원했다. 이러한 급진적 자유 투쟁을 경험하면서 진보적인 여성들의 내면에서 반란과 저항의 정신이 깨어났고 마침내 그녀들은 동시대 여성의 해방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대 폐미니즘이 진보하면서,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남성 만성 차별주의 적 사고와 행동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여성들이 깨달으면서 반 남성주의는 더 이상 운동의 이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성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운동은 젠더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면적인 노력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 하지만 함께 연대해 폐미니즘을 전전시키려는 여성들의 발목을 그녀들 내면의 성 차별주의 적 사고가 붙잡았다. 여성들이 경쟁하듯 반목하는 한, 자매애는 강력해 질 수 없었다. 모든 여성은 어떤 식으로든 남성 중심주의의 피해자라는 현실인식만을 토대로 세워진 유토피아적 자매애는 계급과 인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무너져버렸다. 현대 폐미니즘에서는 초기부터 인종 논의에 앞서 계급 차별에 대한 논의 부터 등장했다. 다이애나 프레스 출판사는 이미 1970년대 중반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적 대를 꿰뚫어보는 혁명적인 통찰이 담긴 『계급과 폐미니즘 Class and Feminism』이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결코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믿음을 무시해서 이런 논의를 한 게 아니다. 이 책은 오히려 우리가 젠더와 계급, 그리고 인종을 통해 여성이다른 여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방식에 맞서야만 비로소 투쟁으로 맷어 진자매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이러한 차이들을 다루는 정치적인장을 마련한 셈이었다.

현대 폐미니즘 운동의 초기부터 흑인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운동의 '주역'으로 대중 매체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대개 폐미니즘 운동에서 활동한 흑인 여성들은 (다수의 백인 레즈비언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폐미니스트 revolutionary feminist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폐미니즘의 미래를 기존 사회 체계 내에서 여성의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으로 만 그리려는 개혁주의 폐미니스트 reformist feminist들과 불화 중이었다. 그러나 폐미니즘 운동의 여러 그룹에서 인종 문제를 널리 논의하기 전부터 이미 흑인 여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혁명적 동맹자들은) 기존의 백인 우월주의자 본주의-가부장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절대 남녀가 평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환히 꿰뚫고 있었다.

폐미니즘 운동은 초기부터 양극화되었다. 개혁파들은 젠더평등을 더 중시했다. 혁명파들은 기존 체계를 조금 손보는 것으로 여성의 좀 더 권리 차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예 그 체계를 뜯어고치고 가부장제와 성 차별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가부장제 하의 대중 매체는 이런 혁명파의 주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당연히 이 주장은 주류 언론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여성 해방'의 이미지는 남성의 것을 여성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혁명파의 주장과 달리 수월하게 받아들여졌다. 경기 침체와 실업 등 미국 경제에 불어 닥친 각종 변화들로 시민들이 일터에서 젠더평등 개념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백인 남성들이 여성에게 권리 차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예 그 체계를 뜯어고치고 가부장제와 성 차별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가부장제 하의 대중 매체는 이런 혁명파의 주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당연히 이 주장은 주류 언론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여성 해방'의 이미지는 남성의 것을 여성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혁명파의 주장과 달리 수월하게 받아들여졌다. 경기 침체와 실업 등 미국 경제에 불어 닥친 각종 변화들로 시민들이 일터에서 젠더평등 개념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백인 남성들이 여성에게 권리 차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예 그 체계를 뜯어고치고 가부장제와 성 차별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가부장제 하의 대중 매체는 이런 혁명파의 주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당연히 이 주장은 주류 언론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여성 해방'의 이미지는 남성의 것을 여성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혁명파의 주장과 달리 수월하게 받아들여졌다. 경기 침체와 실업 등 미국 경제에 불어 닥친 각종 변화들로 시민들이 일터에서 젠더평등 개념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동의 성공 이후 백인 여성들이 자유의 확대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일터에서의 젠더 평등에 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개혁적 폐미니즘은, 개혁을 요구하면 서도 동시에 사회 구조를총체적으로 재편해나라 전체가 근본적으로 성차별주의에 맞서 게해야 한다는 현대 폐미니즘의 급진적인 토대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특히 특권 층 백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기존 사회 구조 내에서 경제력을 획득하게 되면서 혁명적 폐미니즘의 비전은 고려 대상에서 멀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혁명적 폐미니즘을 가장 잘 포용한 곳은 학계였다. 학계에서는 혁명적 폐미니즘을 이론으로 정립해 발표했지만, 정작 대중은 이 이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결국 이 이론은 우리 중에서도 학식이 뛰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대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특권 층의 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폐미니즘으로의 변혁에 관한 해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폐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와 같은 작업은 결코 주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대중은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 본 적도 없다. 따지고 보면 대중은 이런 책에 담긴 메시지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도 모르니 말이다.

주류 세력인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 입장에서는 반남 성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거나 여성이나 남성과 같은 권리 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지 않은 폐미니즘이론을 얹 압하는 편이득이었고 개혁적 폐미니스트들도 이들의 목소리를 지우려 애썼다. 개혁적 폐미니즘은 그들에게 계층이동의 수단이었다. 그들은 일터에서 남성 중심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좀 더 주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차별주의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존 체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한 곳은 일은 차취당하는 종속된 하층 계급 여성들이 떠맡을 터였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과 가난한 여성들의 종속을 수용하고 오히려 레이와 결탁함으로써 기존 가부장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성차별주의 와도 동맹을 맺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남성과 대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 대도, 가정에서는 대등하게 일원화 할 때만 권리 를 요구하는 이중 생활을 영위할 권리 를 바란다. 레즈비언이라면 직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 받는 특혜를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계급 권력을 이용해 남성과 거의 혹은 전혀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 생활을 꾸릴 수도 있다.

라이프스타일 폐미니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성의 수만큼 다양한 폐미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을 낳았다. 별안간 폐미니즘에서 정치성이 서서히 열어졌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 보수건 진보건 여성이라면 폐미니즘을 평소 라이프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분명 이런 식의 사고 덕분에 폐미니즘은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여성이나 자신이 속한 문화에도 전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아도 폐미니스트 일 수 있다는 전제가 그 기저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임신 중 단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폐미니즘이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억압을 종식하려는 운동이고 여성에게서 임신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그런 억압의 한 형태라면, 임신 중 단권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폐미니스트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은 임신 중 단권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성은 다른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폐미니즘 정치를 옹호할 수 있다. 임신 중 단권을 반대하면서 폐미니즘을 옹호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얻은 권력에서 파생했다면 '파워 폐미니즘'이라는 개념도 있어서는 안 된다.

폐미니즘 운동이 선명한 뜻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미니즘 정치는 그 기세를 잃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러한 뜻이 있다. 그것을 되살리자. 널리 알리자. 새롭게 시작하자. 폐미니즘이 무엇인지 세상에 제대로 전하자. 티셔츠를 입고 자동차 범퍼에 스티커를 붙이자. 엽서를 쓰고 힙합 음악으로 만들자.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며 곳곳에 자리한 광고판으로 폐미니즘을 알리자. 갖가지 인쇄물로 폐미니즘을 전파하자. 이로써 폐미니즘이 성차별주의 적인 억압을 종식하려는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 운동에 다시 불을 붙이자.

## 2 장: 의식화 — 꾸준한 회심回心

폐미니스트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덮어놓고 폐미니즘 정치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 입장이 으레 그렇듯이 폐미니즘 신봉자도 선택과 행동으로 폐미니즘 정치를 택한다. 성차별주의와 남성 중심주의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위해 처음으로 모임을 조직했을 당시 여성들은, 여성도 남성처럼 성차별주의 적인 사고와 가치를 믿도록 사회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면 여성보다 남성이 성차별주의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그렇기에 가부장제로 인한 특권을 쉽사리 포기 하려 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앞서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했다. 우리 자신부터 의식화해야 했다.

혁명적페미니즘의 의식화교육에서는 지배체계로서의 가부장제에 대해 꼭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가 어떻게 일상화되었으며 어떻게 유지되고 영구화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남성중심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일상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되고, 착취당하고, 더 나쁜 경우 학대 받는지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 조직된 의식화 모임에서 여성들은 희생자가 되는 상황에 대해 억눌렸던 적대감과 분노를 표출하곤 했고 중재와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일은 거의 또는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상처받고 착취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의식화 모임은 기초 수준에서의 심리 치료과정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았던 내밀하고도 깊은 상처를 터놓고 드러냈다. 이런 고백은 마치 치유의식 같았다. 여성들은 의식화되면서 일터와 가정에서 가부장제 폭력에 맞설 힘을 얻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일로 여성들이 자신의 성차별주의 적 사고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페미니즘 적 사고로 전환하고 페미니즘 정치에 전념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의식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의식화 모임은 사고 전환의 장이었다. 대중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조직화해야 했다. (빌리거나 공짜로 제공받거나 해야 하는 공공장소보다) 대개 누군가의 집에서 열린 의식화 모임은 만남의 장소였다. 여기서 노련한 페미니즘 사상가들과 활동가들이 새로운 개심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의식화 모임에서는 소통과 대화를 중요 의제로 여겼다. 여러 모임에서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성들은 순서를 정해 발언 함으로써 모두가 목소리를 내게 했다. 위계 없는 토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참석자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때문에 대화가 막 끊어지거나 끊기는 경우도 잦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보통 모든 참가자가 적어도 한번씩 발언한 뒤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다. 의식화 모임에서는 논쟁은 흔했는데, 이는 남성 중심주의의 본질에 대해 집단 차원에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오로지 토론과 의견 충돌을 통해서 만전 더 착취와 억압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모색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끼리 서로 잘 아는 (그들은 직장 동료 혹은 친구 사이였을 것이다) 소규모 모임에서 페미니즘 적 사고가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더 광범위하게 전파하고자 문서화하고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의식화 모임은 와해되었다. 여성학이 학문으로 정립되자 여성들이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생겨났다. 여성 학수업이 대학에 개설되도록 앞장선 여성들은 대부분 민권 운동과 동성애자 인권 운동, 초기 페미니즘 운동에나섰던 급진적 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박사 학위가 없었는데, 그 말인즉 그들이 다른 학과의 동료들보다 더 낮은 임금과 더 긴 노동 시간을 감수하며 학교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여성학을 정식 학문으로 공식화 하려는 움직임에 젊은 대학원생들이 합류했을 즈음, 우리는 더 높은 학위를 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대부분은 여성학 연구에 매진하는 게 페미니즘 정치를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페미니즘 운동을 위한 학문적 기틀을 만다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여성학은 어엿한 정식 학과로 자리 잡아갔다. 이러한 승리는 여성학 제도화의 길을 닦은 여성들이 대부분 박사가 아니라 석사라는 이유로 해고됨으로써 무색해졌다. 우리 중 일부는 박사 학위를 다기 위해 학교로 돌아갔지만 가장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끝내 그려지 않았다. 상아탑에 몸시 환멸을 느끼기도 했거니와 과로로 탈진하기도 했고 여성학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던 급진적인 정치가 진보적 개혁주의로 대체된 것에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이다. 얼마 가지 않아 여성학 강의실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의식화 모임을 대체했다. 전업 주부나 서비스업 종사자, 일류 전문직 여성처럼 각양각색의 여성들이 광범위한 의식화 모임에 참석했던 시절과 달리 학계는 예나 지금이나 계급 특권의 장이다 반드시 현대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었던 급진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수적으로 다수였던 중산층 백인 여성들이 자주 유명세를 탔는데, 대중 매체가 투쟁의 대변자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혁명적 페미니즘의식을 가진 여성들은 다수가 레즈비언이고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는데, 운동이 주류의 관심을 받을 때면 이들은 있어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간주됐다. 여성학이 보수적인 합의 기구인 대학에 자리를 틀자 비로소 이런식의 추방이 완성됐다. 여성학 강의실이 페미니즘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이자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낼 전략인 의식화 모임을 대체하자, 페미니즘 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다질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

갑자기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거나 경제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젠더 차별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여성학이 제도화되자 학계와 출판계에 여러 직업 군이 등장했다. 페미니즘이 경력을 쌓는 도구로 변질되면서,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페미니즘 투쟁에 참여해 본 적 없는 여성들이 자신의 계급 상승에 유리하다면 기꺼이 페미니즘의 입장과 용어를 수용하는 기회주의가 되어졌다. 의식화 모임이 와해되면서 페미니즘의 옹호자가 되려면 페미니즘에 대해 배우고 그에 근거해 페미니즘 정치를 수용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는 의식도 희미해졌다.

의식화 모임으로 여성들 역시 자신만의 성차별주의 적 시선으로 다른 여성들을 바라본다는 사실과 대면하게 됐으나, 이런 모임이 와해되면서 페미니즘 운동은 지장에서의 평등과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운동 방향을

전환했다. 여성들(차별적인 법률을 개정하거나 차별 철폐 조치를 통해) 보상 받아야 할 젠더 평등의 '피해자'로 해석하는데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우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로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 말았다. 여성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남성 중심주의나 젠더 평등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분노하기만 하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를 직시하지 않은 채 페미니즘의 기치를 듣는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배반하곤 했다.

1980년대 초가 되자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 만해도 몹시 중요시했던 정치화된 자매애가 희미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이라면 정치적 입장에 상관 없이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의 그림자가 급진적 페미니즘 정치에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말 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사고 방식은 페미니즘이론과 실천, 페미니즘 정치를 약화시켰다.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 모두를 위해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대중 운동으로 거듭나는 전략들을 끊임없이 강화해가면서 다시 태어날 때, 의식화는 다시 한번 본래의 중요성을 되찾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효과적으로 본떠서 페미니즘의 식화 모임이 공동체마다 열린다면, 계급이나 인종, 젠더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페미니즘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이 속속 나타나 매월 말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될 것이다.

혁명적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남성의 페미니즘의 식화가 여성의 식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남성에게 성차별주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지역점을 두고 가르쳤다면 대중 매체 가지금처럼 페미니즘 운동을 반 남성 운동이라고 묘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남성들의 운동도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다. 정작 성차별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았던 현대 페미니즘의 뒤를 쫓아 이런 저런 남성 단체들이 생겨났다. 여성들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이 그랬듯이, 이런 단체들도 가부장제를 비판하거나 남성 중심주의에 저항하기보다는 남성들이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을 뿐이다. 미래의 페미니즘 운동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성차별주의에 저항하는 남성들은 누구든 그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성과 연대해 투쟁하지 않고서 페미니즘 운동은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인 식체계에 페미니즘은 곧 반 남성 운동이라는 억측이 뿐만 아니라 박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 반대한다. 남성의 특권을 벗어던지고 페미니즘 정치를 기꺼이 포용한 남성은 투쟁의 소중한 동료이자 페미니즘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반면 여성이라 해도 성차별주의 적 사고와 행동에 젖은 채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여성은 운동에 해를 입히는 위험한 존재다. 그런 점에서 의식화 모임이 거둔 가장 강력한 성과는, 모든 여성에게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다시 말해 가부장제 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충성과 협신을 직시하고 페미니스트로 거듭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 페미니즘 정치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 외부의 적과 맞서려면 그전에 내면의 적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은 성차별주의 적 사고와 행동이다. 여성 자신의 성차별주의를 직시하지도 바꿔내지도 못한 채 페미니즘 정치의 기치를 내건다면 페미니즘 운동은 끝내 소멸해버릴 것이다.

### 3 장: 자매애는 여전히 강력하다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구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이지 굉장히 광장했다. 내가 페미니즘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였다. 스텐퍼드 대학으로 옮기기 전 1년 동안 여대를 다녔는데, 그 덕분에 여학생들만 있는 강의실과 남녀가 섞인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의 자존감과 자기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할 수 있었다. 스텐퍼드에서는 어느 강의실에서든 남학생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여학생들은 발언도 잘하지 않았고 학습을 주도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데다 발표를 해도 종종 뛰어라고 하는 지랄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패기와 자신감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남자 교수들은 수시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므로 '위대한' 사상이나 작가 등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녔던 여대에서는 대부분이 여자인 교수진이 학생들과 그들 자신을 위해 세워놓은 학업 성취도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줬기에 그런 분위기가 몹시 충격적이었다.

사실 나는 가장 좋아했던 백인 여성 영문학 교수님에게 큰 혜택을 입었다. 그녀는 우리 학교에는 글쓰기 심화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적절한지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내가 스텐퍼드 대학으로 옮겨 공부하게끔 격려해주었다. 그녀는 내가 언젠가는 뛰어난 사상가이자 작가가 되리라 믿어주었다. 스텐퍼드에 오자 사람들에게 속해서 내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나조차 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얼마 뒤 페미니즘 운

동이 캠퍼스를 뒤흔들었다. 여학생들과 여자 교수들은 강의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젠더 차별을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우아, 지금 생각해도 치열하고도 근사한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작가 틸리 올슨<sup>2</sup>에게서 생애 최초로 여성학 수업을 들었다. 틸리 올슨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운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보게끔 이끌었다. 당시 학자였고 훗날 앤 색스턴<sup>3</sup>의 전기를 쓴다이 앤 미들브룩<sup>4</sup>은 현대 시수업 시간에 내가 쓴 시 한 편을 누가 썼는지 적지 않은 채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지은 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혀보라고 했다. 성별을 근거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시도였다. 그때 열아홉 살인 나는 첫 책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 흑인 여성과 폐미니즘』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폐미니즘 운동이 없었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토대는 당시 우리가 “내부의 적”이라 불렀던 내면화된 성차별주의에 대한 자발적인 비판 위에 세워졌다. 우리 모두가 가부장제적 사고 때문에 여성의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기고, 가부장제에서 인정받기 위해 언제나 여성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하고, 서로를 질투심과 공포, 증오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사회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성차별주의적 사고 탓에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기보다 서로를 가혹하게 벌주려 했다. 그러나 폐미니즘은 우리 여성들이 자기 혐오를 떨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의식을 단단하게 읽어매던 가부장제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성들의 유대는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 사람들은 남성들이 집단을 만들면 단결하고,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개인적인 성취와 인정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아주 당연시 해버린다. 하지만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의 유대는 불가능했다. 그런 행동 자체가 반역 행위였다. 폐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의 유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우리는 남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다. 우리가 여성작가의 작품을 가르치지 않는 교수들에 맞선 것은, 그 교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강의실과 커리큘럼에 만연한 젠더에 대한 편견을 제대로 몰아내고 싶어서였다.

1970년대 초반, 남녀 공학대학에서 학생들이 폐미니스트로 변모했듯이 일터와 가정에서도 폐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폐미니즘 운동은 여성에게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몸을 남자의 소유물로 인식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권과 효과적인 피임, 임신 선택권, 강간과 성희롱의 근절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단결해야 했다. 여성의 결혼은 고용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여 공공정책을 개선해야 했다. 여성의 내면화된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끄집어내 이를 뜯어고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 강력한 자매애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혁명적 민권 운동의 뒤를 이어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난 폐미니즘 운동은 우리나라의 얼굴을 바꾸었다. 이런 변화를 가능케 했던 폐미니즘 활동가들은 모든 여성의 복지에 관심을 쏟았다. 자매애로 드러난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가 여성의 경험을 긍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나누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았다. 폐미니스트들의 자매애는 어떤 형태로든 가부장제로 인한 모든 불의에 대항해 투쟁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젊어졌다.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는 항상 성차별주의를 약화시키고 가부장제를 전복시킬 판을 짠다. 여성들이 이종속적인 지위의 여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권력을 스스로 기꺼이 벗어던지지 않았더라면, 인종과 계급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아우르는 자매애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성들이다른 여성들을 지배하기 위해 계급이나 인종적 특권을 이용하는 한, 폐미니즘의 자매애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1980년대 들어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를 벗어던지게 하는 폐미니즘의 식화를 거치지 않은 채 기회주의적으로 폐미니스트임을 자임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의 명제가 그들과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원래 참정권이 없었으나 이제는 특권을 손에쥔 백인 여성들이,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를 버리지 않은 채 계급 권력을 얻자 여성들 간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유색인종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종 차별주의를 비판하고 인종 차별주의가 어떻게 폐미니즘이론과 실천의 틀을 짜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자고 호소할 때, 수많은 백인 여성들은 머리와 가슴의 문을 걸어닫고 자매애라는 이상으로부터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계급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거의 가계급 특권을 지닌 백인 여성들의 토론이 긴했으나 폐미니스트들이 소외 계층 여성의 예속화와 인간성 말살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가사도 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토론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물론 그 중 일부는 피고용인들과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여전히 불평등 하긴 하나 서로에게도 움을 주는 관계를 만들었다. 어차피 유토피아에도 달할 수 없기에 자매애를 포기하기보다는 모두의 이해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자매애를 창안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폐미니스트 연대가 어렵게

<sup>2</sup> Tillie Olsen, 1912~2007. 1 세대 미국 폐미니스트이자 작가. -역자주

<sup>3</sup> Anne Sexton, 1928~1974. 폴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여성 시인으로 정신 질환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역자주

<sup>4</sup> Diane Middlebrook, 1939~2007. 스탠퍼드 대에서 오랫동안 여성학을 가르친 여성 전기작가이자 시인. -역자주

이뤄낸 결과였다. 안타깝게도, 페미니즘운동내부에서 기회주의가 팽배할 수록, 페미니스트들이 거둔 결실을 대단찮게 여기고 그 성과를 당연시 할 수록 이런 연대의 형성과 지속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는 여성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매애의 신념을 간단히 포기했다. 한때 가부장제를 비난하고 이에 저항했던 여성들이 성차별주의자 남성들과 다시 결탁했다. 급진적 성향의 여성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하고 적대적인 경쟁에 배신감을 느껴 순순히 물러서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모든 여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을 지녔던 페미니즘 운동은 점점 계층화되었다. 운동의 구호로 외쳤던 자매애는 여성들에게 점점 중요치 않아졌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힘이었던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는 그 후로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처럼 다시 한번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 우리는 정치적 연대를 실현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매애라는 비전만 가지고 있었다. 경험과 노고는 물론이고, 실패와 실수에서 얻은 교훈들을 통해 이제 우리는 페미니즘 정치에 발을 갓 들인 입문자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만들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이론과 공유된 실천 사례를 갖고 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잘 모르는데다, 성차별주의를 더 이상 문제로 제시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 또한 널리 퍼져 있기에 비판의식을 키우는 페미니즘 교육이 지속되어야 만한다. 페미니즘이론가들은 어린 여성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겐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 사회의 여성들 대부분이 자매애의 가치와 힘을 망각하고 있다. 새롭게 거듭난 페미니즘 운동은 다시금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여성들 중에서도 급진적인 세력들은 자매애의 결속을 다지고 여성들의 페미니즘 정치 연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인종과 계급의 벽을 넘어 단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여성들이 서로를 지배하지 않아도 자아 실현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이론과 실천을 계속해서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매일 매일 일상에서 자매애가 완전히 실현 가능한 것이며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 4 장: 비판의식을 키우기 위한 페미니즘 교육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기 전이나 페미니즘 문학이 등장하기 전,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모임을 꾸려 페미니즘을 공부했다. 이런 모임에서 여성들은 성차별주의에 대한 분석과 가부장제에 저항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아우르는 페미니즘이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왜 특정한 관점을 갖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는지의식적으로 탐구하든 말든, 사고와 실천을 형성하는 체계는 언제나 그저 변에 놓여 있다. 페미니즘이론은 처음부터 성차별주의 적사고가 어떻 게 작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변화를 이끌어 낼지 남녀 모두에게 설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시절 우리는 부모와 사회에 의해 성차별주의 적사고를 받아들이도록 사회화되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인식의 기반에 대해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 덕분에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 페미니즘이론은 구전되거나 조합하게 만든 소식지와 소책자로 전파되었다. (여성들이 쓰고, 인쇄하고, 마케팅을 비롯해 모든 단계에서 제작에 관여하는) 여성 출판이 점점 발전하면서 페미니즘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 쓴 첫 책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 흑인 여성과 페미니즘』을 1981년에 출간했는데, 책을펴낸 사우스 앤드 프레스 출판사는 소규모 사회주의 단체로 구성된 원의 최소한 절반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이었으며 남성 구성원들도 모두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곳이었다.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문학을 쏟아낸 공이야말로 현대 페미니즘이 거둔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성과였다. 젠더 차별의 결과, 문학이든 학술이든 어느 분야에서든 여성의 쓴 글은 역사적으로 거의 혹은 아예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페미니즘 운동으로 커리큘럼에 편견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거나 무시되었던 작품들이 상당수 재발견되었다. 대학에 여성학 강의가 신설되면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제도적 정당성도 갖춰졌다. 흑인 문학 연구에 이어 생겨난 여성학은 편견 없이 젠더와 여성에 대해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흔히여성학강의에서교수들이남성작가의작품을쓰레기취급한다는고정관념과는달리, 예나지금이나그런일은없다. 설령여성들의작품이남성들의작품보다엄청나게뛰어나지않은경우가더러있더라도, 남성들의작품만큼이나뛰어나고재미있는작품이많다는사실을보여줌으로써성차별주의적인사고에개입할뿐이다. 남자가쓴소위위대한문학이비판의대상이되는때는, 미학적가치를따지는과정에서작품에편견이가득하다는사실을알게될때뿐이다. 내가들은그어떤여성학강의에서도남성작가의작품이별볼일없다거나엉뚱한소리라는식으로평가절하한적이없었고그런강의가존재한다는이야기도들어본적이없다. 페미니스트들은남성작가로만채워진학술이나문학의정전에대해비판하면서젠더에근거한편견들을폭로할뿐이다. 무엇보다이러한폭로는여성작가들의작품을재조명할여지를만들고여성이쓴작품과여성에대해쓴작품이새로이등장할이시대의무대를만든다는점에서중요하다.

여성학이제도학문으로자리를잡자페미니즘운동에가속이붙었다. 전국강의실에서젊은지성들이페미니즘사상을배우고이론서를읽고자신들의연구에페미니즘을적용할수있게되었다. 대학원시절논문을준비할때, 페미니즘의영향을받았던나는당시에는널리읽히지않던흑인여성작가토니모리슨<sup>5</sup>에대해쓰기로정했다. 페미니즘운동전에는흑인여성작가의문학작품에대한진지한연구는찾기어려웠다. 앤리스워커<sup>6</sup>는명성을얻고난후부터조라닐허스턴<sup>7</sup>의작품을복권하는작업에참가했는데, 얼마나지않아허스턴은미국문학계에서가장뛰어난흑인여성작가로등극했다. 페미니즘운동은여성들이거둔학문적성과에대한존중, 과거에쓰인그리고현재쓰이는여성저작물에대한인정, 그리고커리큘럼과교육학에자리한젠더에따른편견을철폐하라고요구함으로써혁명을일으켰다.

여성학이제도화되자페미니즘에대한지식이널리퍼졌다. 여성학은열린사고를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페미니스트로거듭날수있는합법적인장소로자리했다. 여성학수강생들은거기에서뭔가를배우고자했다. 그들은페미니즘사상에대해더많이알고싶어했다. 우리중많은학생들이정치적으로각성한곳도바로여성학강의실이었다. 가부장제적가정에서자란나는남성중심주의에맞서다보니부지불식간에페미니즘사상에눈을뜨게되었다. 하지만단지착취나억압체계의피해자가되거나거기에저항한다고해서왜그런일이일어났는지혹은이를어떻게바꿀수있는지알게되는것은아니다. 나는대학에입학하기한참전에페미니즘정치를신념으로받아들였지만페미니즘강의실에서비로소페미니즘사상과이론을배울수있었다. 또한그곳에서비판적으로사고하고흑인여성으로서의경험을글로쓰라는격려도받았다.

페미니즘사상과이론은1970년대전반에걸쳐죽생산돼왔다. 그리고이는여성들이끊임없이다양한발상에대해대화를나누고교파러다임을검증하고다시고쳐왔다는점에서공동작이었다. 일례로흑인과유색인종여성들이페미니즘사상을형성하는요소중하나로인종에대한편견을문제삼았을때, 특권계급여성들은자신들이진짜여성의경험이라고믿었던것들에결함이있을수있다는개념을접하고일단이를부정했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페미니즘이론은변화했다. 많은백인여성사상가들이재고의여지없이자신이가진편견을인정했지만, 여전히이는대단한변동이었다. 1980년대후반에이르자거의모든페미니즘분과들이인종과계급의차이에대한인식을이론에반영하게되었다. 페미니즘운동과페미니스트연대에진심으로전념해온여성연구자들은여성이처한현실을분석하는이론을생산하는데열정을쏟았다.

여성학이제도학문으로인정받은일은페미니즘사상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했지만, 이과정에서새로운문제점들이생겨났다. 이론과실천에서직접적으로출현한페미니즘사상은배타적인전문용어를만들어내는메타언어적인이론에밀려갑작스럽게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졌다. 이론은오로지학계사람들을위해서만쓰였다. 일군의페미니즘사상가들이특정집단에‘속한’사람들만이해할수있는이론을쓰는엘리트집단을만들려고똘똘뭉친것처럼보였다.

학계밖여성과남성들은더이상중요한청중으로여겨지지않았다. 페미니즘사상과이론은더이상페미니즘운동과이어지지않았다. 학계에서의정치와출세지상주의가페미니즘정치에그늘을드리웠다. 페미니즘이론이학계라는게토에안주하면서그외부와의연결고리는약해졌다. 학계에서는예나지금이나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때로통찰력이담긴결과물이나타나기도하나이러한통찰은대중에게거의알려지지않는다. 그결과페미니즘사상이학문으로고착되어탈정치화가진행되면서페미니즘운동이약화하였다. 급진성을상실한페미니즘운동은젠더에초점을맞춘다는것말고는여느분과학문과다를바가없어진듯하다.

<sup>5</sup> Toni Morrison, 1931~ . 흑인여성작가최초로노벨문학상을수상한미국작가.-역자주

<sup>6</sup> Alice Walker, 1944~ . 『컬러피플』로흑인여성작가최초로풀리처상과전미도서상을수상했으며, 흑인민권운동에참여했던인권운동가이자페미니스트.-역자주

<sup>7</sup> Zora Neale Hurston, 1891~1960. 미국의흑인여성문인이자인류학자로대표작으로는『그들의눈은신을보고있었다』가있다.-역자주

사람들에게지식을전달하고, 페미니즘사상과페미니즘정치에대한이해를돕는글은다양한문체와형식으로쓰여야한다. 특히청년문화를다루는글이필요하다. 그러나학계에서이런글을쓰는사람은아무도없다. 젠더정의를위한투쟁이만들어낸변화를보수주의자들이다시되돌리려고기를쓰는바람에이미대학에서여성학강좌가위기에처해있긴하나포기할것이아니라오히려지역공동체를기반으로페미니즘공부모임을시작해야한다. (전도하는종교인들처럼) 집집마다찾아다니며자료를나눠주고시간을들여서페미니즘이대체무엇인지설명하는대중적인페미니즘운동을상상해보라.

페미니즘운동이정점에달했을때, 성차별주의적시각을담은어린이책들이도마위에올랐다. 사람들은‘편견에서해방된’어린이책을썼다. 그러나우리가비판적인시선으로경계하기를늦추자성차별주의가다시금고개를쳐들었다. 아이들은신념과정체성이아직형성되는과정이므로어린이문학은비판의식을키우기위한페미니즘교육에서가장결정적인부분을차지한다. 그리고대개아이들은놀이터에서젠더에대한편협한사고를일상적으로접하게된다. 페미니즘활동가들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공교육분야에서편견이배제된커리큘럼이사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

미래의페미니즘운동은반드시페미니즘교육을모두의삶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로인식해야한다. 스스로의힘으로부를축적했든지투쟁의동맹자인부유한남성들에게기부를받았든지간에,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여성페미니스트들이생겨났다. 그러나소녀소년과성인남녀를위해페미니즘원칙에입각한학교는단한곳도설립되지못했다. 모두에게페미니즘을가르치는대중기반의교육운동을일구는데실패했기에우리는가부장제주류대중매체가페미니즘을전파하는모습을, 그것도대개부정적으로전파하는모습을지켜볼수밖에없었다. 페미니즘사상과이론을모두에게가르친다는말은우리가학제를넘어서고심지어문자언어마저넘어서야한다는뜻이다. 시중에나온페미니즘관련서도읽기버거워하는사람들이많다. 오디오북과노래, 라디오, 텔레비전모두가페미니즘에대한지식을퍼뜨리기위한수단이다. 또한우리에게는단순히여성시청자를대상으로하는방송망이아닌, 페미니즘텔레비전방송망도필요하다. 페미니즘텔레비전방송망을만들기위한기금을모으는과정은페미니즘사상이전세계로퍼져나가는데일조할수있다. 그런방송망을소유할수없다면기존방송망에서시간대를살수도있다. 잡지「미즈 Ms」의경우오랫동안성차별주의자인남성들이일부소유했으나지금은페미니즘에깊이헌신하는여성들이소유하고있다. 이것이올바른방향을향한한걸음이다.

여성이든남성이든모두에게페미니즘교육을제공하는대중운동을조직하지않으면페미니즘이론과실천은주류언론이만들어낸부정적인정보로인해늘힘을잃고말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이우리삶에어떤긍정적인기여를했는지직접나서서널리홍보하지않는다면이나라의시민들은페미니즘이어떤결실을거두었는지도를것이다. 페미니즘을부정적으로그리는지배의문화가페미니즘이공동체와사회복지에건설적으로기여한공을가로채기도한다. 대부분의사람들은페미니즘이우리삶을긍정적으로변화시킨무수히많은것들에대해전혀알지못한다. 페미니즘사상과실천을공유해야페미니즘운동을어나갈수있다. 페미니즘지식은모두를위한것이다.

## 5 장: 우리의몸, 우리자신 — 임신선택권

현대페미니즘운동이시작되었을무렵운동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다고여겨졌던이슈들은(대부분물질적으로도풍요로웠던) 고학력백인여성의경험과직결되어있었다. 페미니즘운동이민권운동과성해방운동에뒤이어출현했기때문에그당시에는여성의몸을둘러싼문제들을중요시하는게타당해보였다. 대중매체는미스아메리카선발대회에서브래지어를불태우는여성들부터임신중단을요구하는여성들로이어지는이미지가페미니즘운동이라는인식을온세상에퍼뜨렸지만이런이미지와반대로페미니즘운동을촉진한첫번째이슈는바로섹슈얼리티문제였다. 다시말해여성이언제그리고누구와섹스할지선택할수있는권리에대한문제였다. 여성의몸에대한성적착취문제는사회주의운동이든민권운동이든사회정의를위해싸우는급진적인운동의내부에서도흔하게발생했다.

이른바성혁명이정점에달했을때자유연애(보통은원하는상대와원하는만큼섹스한다는뜻이었다)라는이슈로여성들은원치않은임신문제를정면으로바라보게되었다. 자유연애를둘러싼젠더평등에대해논하기에앞서여성은피임과임신중단을안전하고효과적으로할수있어야만했다. 계급특권을지닌백인여성들이야대개이두가지보호장치를모두누렸지만, 대다수여성은그렇지못했다. 계급특권을지닌여성들중에도원치않은임신을너무나수치스러워한나머지신뢰할만한의료서비스를직접활용하지않는경우도잦았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 대초사이에 임신중단권을 요구했던 여성들은 불법적인 수술로 인한 비극이나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재앙을 목격한 이들이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느닷 없고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삶이 바뀌어버린, 재능 있고 창조적인 여성들의 예기치 않은 아이다. 우리는 비통해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운명에 낙담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에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을 할 수 없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해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다.

돌이켜 보면, 임신선택권보다 임신중단권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의 최전선에 선 여성들이 가진 전반적인 계급적 편견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신중단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여성들과 관계된 문제지만 임신중단 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대중에 충격을 줄 만한, 재생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더 있었다. 기본적인 성교육에서부터 산전 관리, 여성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움이 될 만한 예방 의료 서비스, 강제 불임과 불필요한 제왕절개나 자궁 절제, 그에 따른 합병증 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친 문제였다. 계급 특권을 지닌 백인 여성들은 이 중에서 원치 않은 임신에 따르는 고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임신중단 문제를 부각했다. 그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 수술이 필요한 유일한 집단이 절대 아니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들은 빈곤층 여성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보다는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방법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 시절 흑인 여성들을 비롯한 빈곤층 여성들은 대개 불법 시술소를 찾았다.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권리라는 ‘백인 여성들만의’ 문제 가 아니었다. 임신중단권은 재생산 문제에 있어서 아니라 여성들이 당면한 유일한 문제도, 최우선 시할 문제도 아니었다.

여성의 성해방으로 가는 길을 닦은 공을 따지자면 임신중단권보다는 안전을 백퍼센트 보장 할 수는 없어도 효과가 뛰어난 피임약 개발이 (이는 남성 과학자들이 개발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성차별주의자였다) 더 큰 기여를 했다. 내가 십대 후반에 있었을 무렵 피임약 구입이 처음으로 대중화됐는데, 덕분에 내 또래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공포와 수치심을 피해갈 수 있었다. 책임감 있는 피임은 나처럼 다른 여성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이 문제에 맞닥뜨린 개인이 반드시 임신중단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여성들을 해방시켰다. 나는 성해방 운동이 한창 일 때도 원치 않은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내 또래들 중 많은 이가 피임약을 신경 써서 철저하게 복용하는 것보다 임신중단 수술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봤다. 그래서 피임의 수단으로 임신중단 수술을택하는 일이 빈번 했다. 여성의 피임약 복용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갖기 위한 선택이라고 곧장 받아들여졌다. 남자들은 피임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자들을 헤蟠여자로 취급했다. 어떤 여자들은 성행위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혹 날 ‘문제’가 생기면 수술로 해결하는 편이 더 간단하다고 여겼다. 오늘날에는 반복적인 임신중단 수술이나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피임약 장복이나 둘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여자들은 성적 자유를 위해 다시 말해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떠안았다.

임신중단권 문제야 말로그里斯도교 근본주의에도 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었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에 곧장 반기를 든 것이다. 지금껏 임신중단권 만큼 여성의 몸이 국가적인 관심 대상이 된 적도 없었다. 임신중단권은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관심을 촉구했던 재생산과 관련한 다른 모든 문제는 대중매체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제왕절개와 자궁 절제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의학적 문제들은 대중매체에게 군침도는 소재가 아니었다. 정작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여자의 신체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여성의 몸을 다루는 자본주의·가부장제·남성 중심주의 적의료계에 주목하기를 촉구했다. 지독히도 보수적이고 대부분 반 페미니즘적인 대중매체가 보기기에 이런 분야에서 벌어지는 젠더 불평등 문제는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급진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1960년 대후반에서 1970년 대초반에 활동했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여성의 임신선택권을 보장 받기 위해 1990년 대까지도 투쟁해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시 활동가들은 페미니즘 운동으로 비교적 안전한 피임약의 사용을 용인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권리 를 누릴 수 있는 문화 혁명을 일으키면 앞으로 이런 권리가 더 이상 문제로 되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이끌었던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운동이 종말을 고하자, 근본주의자들의 종교 해석을 발판으로 조직된 우익 정치 전선에서 반 페미니즘 역풍이 몰아닥쳤고 이에 임신중단 문제가 다시 정치적 문제로 떠올랐다. 여성의 자기 선택권에 다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임신중단권 반대 세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하고,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임신중단 수술을 맹렬하게 겨냥한다. 그 결과 인종을 불문하고 계급 특권을 가진 모든 여성들은 계속해서 안전한 임신중단 권을, 자기 선택권을 누리지만 빈곤층 여성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빈곤층 여성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대부분 임신선택권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길이 사라진다. 돈이 있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대도 계급 특권을 지닌 여성들은 여전히 돈이 있으니 상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런 계급 권리가 없다. 요즘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빈곤층이나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안

전하고, 저렴하고, 때로는 무상인 임신 중단 수술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잃는다. 임신 중단 수술이 돈 많은 여성들의 전유물인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면 임신 중단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공공정책도 귀환할지 모른다. 이미 보수성향을 지닌 여러 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계급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속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신 중단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은 임신 선택권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일 뿐이다. 임신 선택권의 여러 측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개개인의 연령과 삶의 조건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다. 성욕이 왕성한 2~30 대 여성은 언제든 원치 않은 임신에 직면 할 수 있으니 피임약만으로는 안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할 테고 그 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권리가 임신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중요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완경完經을 하면 의사들에게 자궁 절제를 권유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임신 선택권과 관련해 이 문제가 가장 절실할 것이다.

대중적인 폐미니즘 운동에 불을 다시 피려면 임신 선택권을 폐미니즘의 제한 가운데에 놓아야 한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여성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워진 폐미니즘 운동은 임신 선택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그 어떤 개별 이슈보다 우선 시할 것이다. 그렇다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임신 중단 수술을 중점에 두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모든 여성이 성교육과 예방의학,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접근이 더 쉬워진다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임신 중단 수술의 필요성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임신 중단 수술을 받는 문제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여성들은 앞으로 임신 선택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장을 꺾어야 한다. 임신 중단권 반대 운동은 근본적으로 반폐미니즘 운동이다. 폐미니즘 정치에 헌신하는 여성 스스로는 임신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임신 중단을 찬성하고 임신 중단이 필요하다는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지지할 것이다. 언제든지 효과적인 피임을 할 수 있었던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임신 중단 수술로 일어난 비극을 목격해 본 적 없는 이들은 임신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착취 앞에 여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취약한지 실감하지 못한다. 모든 연령의 여성과 투쟁에 열대한 남성에게 왜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지 이해시키려면 임신 선택권에 수반되는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모든 여성의 임신 선택권을 가진 세상을 만드는 노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지탱하기 위해 임신 선택권에 집중하는 폐미니즘은 꼭 필요하다.

## 6 장: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모의 아름다움

여성의 몸에 대한 성차별주의적인 사고를 깨부수려는 도전은 현대 폐미니즘 운동의 개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여성 해방 운동이 전에는 짚고 늙은 모든 여성들이 성차별주의적인 사고를 주입 받아 우리 의 가치가 외모에 만족되었으며 어쨌거나 보기 좋아야 하고 특히 남성이 보기기에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애를 키우지 않으면 여성은 절대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 폐미니즘 사상가들은 문제의 본질로 곧장 파고들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낼 건설적인 전략을 제공한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요즘에 애브래지어를 착용할지 말지 편안하게 선택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결정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여성들은 건강에도 안 좋고 불편하며 우리 몸을 구속하는 브래지어와 거울, 코르셋, 가터벨트 등을 벗어던겼는데, 이는 여성의 몸이 지닌 아름다움과 건강을 되돌려 달라요 구하는 급진적이면서도 일종의 의식 같은 행동이었다. 오늘날 그런 제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성들은 우리의 이런 주장이 획기적인 것인 것에 있음을 그린가보다하고 받아들일 뿐이다.

좀 더 깊이 파고들자면 이러한 의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언제 어느 때나 편안한 옷을 입게 되었다. 일 때문에 노상 몸을 굽히거나 꺾거나 그려 앉아야 했던 많은 여성들은 작업복으로 바지를 입게 된 것만으로도 열광했다. 원피스나 치마가 항상 불편했던 여성들도 이런 변화를 환영했다. 요즘에 애어릴 때부터 입고 싶은대로 옷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시해 보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성인 여성들이 폐미니즘을 받아들이면서 발목이 꺾이는 불편한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이런 변화에 제화업계는 굽낮고 착화 감 좋은 여성 용 구두를 디자인해 내놓았다. 화장을 강요하는 성차별주의적인 전통이 사라지면서, 여성들은 거울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폐미니즘의 개입으로 의복과 인체 혁명이 축발되면서 여성은 우리 몸이란 본디 타고난 그대로 사랑받고 추앙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의 치장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아무 것도 더 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는

화장품업계와 패션업계의 자본가들이 폐미니즘 때문에 자기네 사업이 망할 것이라며 기겁을 했다. 그들은 대중 매체에 자금을 대고, 폐미니스트들이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며 늙고 추하다는 인식을 퍼뜨리며 여성 해방 운동을 펼쳤다. 실제로 폐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체격도 체형도 다 달랐다.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평가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각자의 다른 것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는 얼마나 흥분했던가.

폐미니즘 등장 초기에는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완전히 끊은 활동가들이 많았다. 이들은 하늘하늘한 프릴이 달린 옷이나 화장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대개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는 사실에 열광했다. 선택이 가능해지자 이왕이면 편안하고 활동이 용이한 옷을 입었다. 여성들의 미용과 스타일에 대한 선호와 편안함과 편의성을 조화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여성들은 (당시만 해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 이었던) 패션계에 다양한 체형을 위한 옷을 만들어내놓으라고 요구해야만 했다. (폐미니즘 활동가들이 여성작가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묵직한 주제를 다룬 기사들을 더 실으라고 요구하여) 여성 지들도 변화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구매력을 이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소비자로서의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게 되었다.

명백히 성차별주의 적 산업인 패션업계를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난생처음으로 외모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병적이며 목숨마저 위협하는가를 짚어보게 됐다. 이에 폭식증과 거식증이 집중조명되었다. 이들은 반대되는 '외모'를 만들어내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질환들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폐미니즘 운동 때문에 성차별주의 적인 의학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폐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무시로 일관했다. 하지만 폐미니스트들이 의료 센터를 열어 여성 중심의 적극적 건강 관리 positive health care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의약업계도 패션업계처럼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존중해주는 진료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성의 몸과 여성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계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모두 폐미니스트의 투쟁이 거둔 직접적인 결실이다. 의료 서비스 문제 즉, 우리 몸을 진지하게 다루는 문제를 놓고 여성들은 의료 산업에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맞서는 중이다. 의료 분야야 말로 폐미니즘 정치를 지지하든 안하든 폐미니즘 투쟁이 대다수 여성에게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분야다. 부인과 질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한 암들 (특히 유방암) 그리고 최근에는 심장 질환 분야에서 여성들의 단합된 힘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이나라에서는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얼마나 예쁘지 않은가로 여성은 판단하려는 강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에 섭식장애를 종식하려는 폐미니스트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집착이 문화적 상상력마저 움켜쥔다. 1980년대 초, 많은 여성들이 폐미니즘에서 멀어졌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폐미니즘의 개입으로 일구어낸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간신히 성차별주의 적미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현대 폐미니즘 운동의 태동기 때 이십대 초반 이었던 여성들이 이제 사십대 후반을 지나 오십대에 들어섰다. 폐미니즘은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어 여성들도 나이듦을 좀 더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대부분 제사회에서 나이든 여성으로의 현실, 특히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과 직면하자,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미를 정의하는 고루한 성차별주의 적인 기준을 다시 받아들였다.

현재 미국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마흔을 넘긴 이 성애자 독신 여성의 수가 많다. 이들이 남성의 관심을 차지하기 위해 더 젊은 여성들 (이들 중 대다수는 폐미니스트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과 경쟁하다 보면 여성의 미에 대한 성차별주의 적인 기준을 따르게 된다. 성차별주의적으로 정의된 미의 기준을 다시 미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적 패션업계와 화장품업계의 이익과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대중 매체도 그에 부화뇌동한다.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에 나오는 배우들이 먹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 든 할 것 같은 비쩍마르고 금발로 염색한 여성들의 이미지가 미의 표준이 되었다.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성차별주의 적 이미지들로 가득 찬 복수심에 불타는 역풍은 폐미니스트들이 거둔 상당한 진보를 되돌리려 위협하고 있다.

요즘 여성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섭식장애 문제에 대해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인지하긴 하나 슬프게도, 여전히 어린 소녀부터 상당히 나이든 여성까지 많은 이들이 날씬해지기 위해 무작정 굶는다. 거식증은 책과 영화 등의 주제로 흔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아무리 무시무시한 경고를 해도 자신의 진가와 아름다움, 내면의 가치가 결국 국마른 몸매로 결정되리라는 여성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대의 패션 잡지는 거식증의 위험을 다루는 기사를 실으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욕망의 대상으로 비쩍마른 젊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퍼붓는다. 이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폐미니즘 정치를 받아들인 적 없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폐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몸이 아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소녀들의 자기 몸에 대한 혐오는 폐미니즘 운동이 등장하기 이전 만큼이나 심하다. 폐미니즘 운동으로 수많은 유형의 여성 친화적인 잡지가 속속 발간되었지만 폐미니즘을 지향하는 어떤 패션 잡지에서도 미의 기준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윤이상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안도 없이 성차별주의 적인 이미지지만 비난한다면 그것은 실

패한개입이다. 비판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비판해 왔지만, 여성들은 뭐가 건강한 선택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을 뿐이다. 나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체중이 늘었으나 자기 혐오에 찌든 성차별주의 적 몸매를 목표로 삼지 않고 체중을 줄이기로 했다. 요즘 패션업계에서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빼마른 십대 소녀들만을 위해 디자인한 것 같은 옷 밖에 없으니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여성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몸매에 신경을 쓰고 살을 골칫거리로 여기도록 사회화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다양한 사이즈와 체형을 가진 여성의 예쁘게 입을 만한 옷을 파는 가게들도 있으나 대개 이런 곳에서는 패션업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옷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 최근 들어 패션 잡지가 점점 더 과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남성 필자가 쓴 기사들이 늘어간다. 페미니즘 시각에서 작성했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패션도 성차별주의 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원숙한 나이에 접어든 수많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한 대체 모델을 모색하기에, 이러한 성차별주의 적 변화들은 공공연하게 인식되진 않는다. 하지만 성차별주의 적으로 정의된 미의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그만둔다면, 우리 몸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해준 페미니스트의 개입이 낳은 눈부신 성과가 그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성차별주의 적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인지 모든 여성들이 전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도,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제적인 감수성이 미용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좌시한다면, 십대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아름다움과 치장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꽉 막힌 페미니스트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을 묵살해 결국 페미니즘 정치가 훼손돼버렸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이런 고지식함은 이제 보기도 물지 만대 중매체는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인 양 이를 전파한다. 페미니스트들이 미용 산업으로, 패션업계로 돌아가지 속적인 혁명에 불을 지피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해방되지 못 할 것이다.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 할 것이다.

## 7 장: 페미니즘 계급투쟁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계급 문제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분열에 대해 인종 문제보다 더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다. 새롭게 형성된 여성 해방 운동 내에서도 대체로 백인이 주류인 그룹에서 여성들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다름 아닌 계급이었다. 노동자 계급 백인 여성들은 페미니즘 운동에도 계급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기본적으로 기존 계급 구조를 유지하되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 해방 운동 개혁파, 그리고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낸 패러다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상호 성과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을 세우자는 좀 더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인 세력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이 진보하면서 고학력자 백인 여성들로 구성된 특권 그룹이 백인 남성과 동등한 계급 권력을 손에 넣게 되자, 계급 투쟁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중요성을 잃고 말았다.

특권 계급 여성들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부류였기에 페미니즘 운동 초기부터 자신들의 관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부각 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대중 매체를 매혹했다. 노동자 계급 여성들이나 대다수 여성들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 주류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베티 프리단은 『여성의 신비』<sup>8</sup>에서 여성의 전업 주부로 가정에 속박되고 예속된다고 느끼는데서 오는 불만을 “이름 없는 문제”라고 이름 붙였다. 이 문제를 여성 전체의 위기인 양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고학력자 백인 여성들의 위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가정에 속박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대해 불평할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은 일터로 향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모든 집안 일을 도맡아야 했던 여성 노동자들 중 다수에게 전업 주부가 될 권리는 오히려 ‘해방’처럼 보였을 것이다.

인종에 관계 없이 특권 계급 여성의 가정 밖에서 일 할 수 없었던 것은 젠더 차별이나 성차별주의 적 억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할 만한 일인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저임금 직종이어서였다. 고학력자 엘리트 여성들은 상당수의 중하위층 그리고 노동자 계급 여성들과 같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전업 주부가 되는 편을 택했을 뿐이다. 때로는 이런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틀을 깨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자신의 교육 수준에 못 미치는 일을 하며 남편과 가족의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러한 저항 때문에 그들은 집 밖에서 마

<sup>8</sup> 미국의 페미니스트 이자 사회 심리학자 베티 프리단 (Betty Friedan, 1921~2006)이 쓴 책. 원제는 『The Feminist Mystique』로, 국내에는 『여성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역자주

주치는 노동문제를 젠더차별문제로 바꾸었으며 가부장제에 저항하고 같은 계급의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은 페미니즘이 계급투쟁 대신 정치 강령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특권계급인 개혁주의 백인 여성들은 처음부터 같은 계급의 남성들이 누린다고 생각한 자유와 권력을 똑같이 원한다는 걸 알았다. 가정에서의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계급을 떠나 남성 중심주의 가지 굿지 굿한 여성들을 뭉치게 했다. 하지만 특권을 가진 여성들만이 가정을 벗어나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소득을 손에 넣으리라 기대하는 호사를 누렸다.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자기네 임금으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개혁주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은 더 많이 받고 직장 내 젠더 차별과 성희롱은 덜 겪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권계급 여성들이 기울인 노력 덕에 모든 여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들이 계급권력을 손에 넣는 동안 그밖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남았다는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해 직장환경을 개선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어떻게 계급이익으로 치환되는지 잘 보여준다.

계급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활동가들 가운데 레즈비언 페미니즘 사상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자신의 관점을 전할 줄 알았다. 그녀들은 애초에 생계를 의탁할 남편의 존재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 일터에서 모든 여성들이 겪는 온갖 어려움에 대해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했다. 1970년 대초반 살럿 번치<sup>9</sup>와 낸시 마이런<sup>10</sup>이엮은 『계급과 페미니즘 Class and Feminism』 같은 작품집에는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계급문제와 맞닥뜨린 다양한 계급의 여성들이 쓴 글이 담겨 있다. 이 글들은 저마다 계급은 단지 돈 문제 가아님을 강조한다. (당시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던) 리타 매브라운<sup>11</sup>은 『최후의 지푸라기 The Last Straw』에서 이렇게 명확히 밝혔다.

“계급은 생산수단과의 관계라는 마르크스의 정의를 훨씬 뛰어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계급은 당신의 행동과 기본 전제, 당신이 어떻게 치신 하도록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활동해온 여성들은 계급문제와 맞서지 않으면 모든 여성들이 단결해 가부장제와 싸우는, 자매애를 토대로 한 정치적 유토피아가 절대 출현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페미니즘의 제1세계 계급문제를 포함하자 계급과 인종 간 교차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인종과 성별, 계급이 사회 체계로 제도화된 우리 사회에서 흑인 여성은 명백히 경제라는 계급 제의 말단을 차지했다. 초기 페미니즘 운동에서 노동자 계급에 속한 고학력 자백인 여성들은 다른 모든 계급의 흑인 여성들보다 더 눈에 띄었다. 이 백인 여성들은 운동 내에서 소수였지만 경험에서 우러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인종과 계급, 젠더 권력에 저항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다른 인종의 특권계급 동지들보다 더 잘 알았다. 그들은 경제 상황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았다. 그들과 특권계급 여성들은 적절한 행동 방향과 페미니즘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했다. 한번도 좌파의 자유 투쟁에 참가해 본 적 없었던 특권계급 여성들은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특권 없는 여성들의 도전에 부딪히며 구체적인 계급 투쟁의 정치를 배웠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기술과 갈등에 대처하는 건설적인 방법도 배웠다. 그러나 수많은 특권계급 백인 여성들은 건설적인 개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페미니즘을 자기네 전유물인 양, 자기네 가리더인 양 굴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부장제는 특권계급 여성들의 이해 관계 만주목 할 가치가 있다는식의 인식을 강화했다. 개혁주의 페미니즘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며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특권계급 여성들은 같은 계급 내의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 를 원했다. 자신이 속한 계급 내에 성차별주의가 만연함에도 그들은 노동자 계급 남성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기는 원하지 않았다. 같은 계급의 남성과 사회적 평등을 이루려는 페미니즘의 노력은 비非 백인에게도 경제력과 특권을 손에 넣은 기회가 등등하게 주어지면 백인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백인 우월주의·가부장제·자본주의의 두려움과 교묘히 겹쳤다. 개혁주의 페미니즘은 사실상 백인 권력을 지지함으로써, 주류인 백인 우월주의·가부장제가 권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방조했으며 동시에 급진주의 페미니즘 정치를 약화시켰다.

<sup>9</sup> Charlotte Bunch, 1944~ .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역자주

<sup>10</sup> Nancy Myron, 1943~ . 여성 동성애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 -역자주

<sup>11</sup> Rita Mae Brown, 1944~ . 미국의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추리 소설 작가로도 유명하다. -역자주

페미니즘운동이 보인이러한 암울한 행태에 분노한 것은 혁명적 페미니즘 사상가들 뿐이었다. 대안언론은 우리 의비판과 분노에 귀를 기울여줬다. 급진주의 백인 활동가 메리 바프 (Mary Barfoot) 은 자신의 에세이집 『흑인대학살의 도래 The coming of Black Genocide』에서 대담한 주장을 했다.

“1970년대 여성 운동이 자매애를 의미한다고 믿었기에,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상처 입고 분노하는 백인 여성들이 있다. 대부분 제거지 배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에게 말이다. 그런데 여성 운동은 단한 번도 아버지 ‘딕’ (Dick) 을 떠나 본적이 없다. … 전쟁은 없었다. 그러므로 해방도 없었다. 우리는 대학살의 이익을 나눠가졌으며 거기에 만족한다. 우리는 대부분 제의 자매들이 자국가와 계급 억압의 진정한 지지자들로, 대부분 제가 가장 발전한 형태를 전 세계적 규모의 유럽 제국주의다. 만약 우리 가 아버지 딕의 자매이고 그가 가진 것을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갖게 만들어 준 체제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

정말이지 자신이 계급 엘리트 주의보다 백인 우월주의를 벗어던지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특권 계급 여성들이 같은 계급의 남성들처럼 경제력을 절기회가 커지면서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계급에 대한 토론은 더 이상 쉽게 접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여성들은 부유한 여성들이 거둔 경제적 성공을 모든 여성들을 위한 긍정적인 징표로 삼으라는 압력만 받았다. 실제로 이런 성공이 빈곤층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특권 계급 남성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가사 노동을 똑같이 분담하지 않았기에 인종을 불문하고 특권 계급 여성들의 종속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렇게 1990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의 기존 사회 구조와 결탁한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여성 해방’이다. 결국 계급 권력이 페미니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이런 결탁이 페미니즘 운동의 약화에 한몫했다.

여성들이 남성과 다를 바 없이 활동하게 되고 더 높은 계급 지위와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자 페미니즘 정치는 약화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페미니즘 열풍에 휩쓸려 느닷없이 노동자가 된 중산층과 중하위층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일을 해도 배우자가 집 안 일을 공동으로 분담하지는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닫고 더 이상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다. 무귀책이 혼<sup>12</sup>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수많은 흑인·유색 인종 여성들은 개혁주의 페미니즘이 거둔 결실이나, 차별 철폐 조치 affirmative action 에 더해 진전 더 차별 철폐 등을 통해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특권 계급 백인 여성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모습을 보며 페미니즘이 결국 백인의 권력을 강화해 줄 뿐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특히 정부가 미혼모를 공격하고 복지제도를 왜 해시켜도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적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페미니즘의 제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배신 행위였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자칭한 특권 계급 여성들은 ‘가난의 여성화’라는 문제에 간단히 등 돌렸다.

‘파워 페미니즘’의 목소리는, 특권 계급이 아닌 그룹들을 향한 연대를 배신하지 않고도 계급 권력을 획득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비해 훨씬 더 주연론의 관심을 받는다. 우리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페미니즘 정치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다른 여성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여자들이 기존 자본주의·가부장제와 결탁해야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참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미국 곳곳에서 페미니스트들은 혁명적인 사회 변혁의 비전을 지지하며, 계급 권력을 갖고서 도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의 삶을 개선할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이용하고자 원을 공유하고 있다.

여성 해방의 유일한 진짜 희망은, 계급 엘리트 주의에 맞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상상력에 달려 있다. 서구 여성들은 계급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인 우월주의·가부장제가 제 3 세계 여성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예속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젠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은 호황을 구가하는 교도 소산업과 노동 연계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 정책을, 보수적인 민정 책과 결합해 계약 노예제가 생성될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종식되면 기존 지배의 구조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여성과 아이들로 구성된 새로운 최하층 계급이 등장할 것이다.

계급을 둘러싼 현실이 바뀌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여기에 더해 가난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릇된 길로 가는 페미니즘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과거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개혁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를 포함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삼는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페미니즘 운동의 전망은 노동자 계급과 빈곤층 여성과 같은 구체적인 기반을 토대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계급 권력을 가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페미니즘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조합을 만드는 일 이야말로 페미니즘 투쟁이 모든 여성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sup>12</sup> 한국의 협의이 혼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 기간 별거 한 후 별거를 사유로 한 쪽이 법원에 이혼 O 르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하는 방식.-역자주

계급권력을가진여성들이기회주의적으로페미니즘을이용하고한편으로페미니즘정치의기반을약화시켜궁극적으로그들을다시종속시킬가부장제의유지를도왔다면그들은페미니즘만배신한게아니다. 그들은스스로를배신한셈이다. 페미니스트라면남성이든여성이든모두계급문제로되돌아가거기서다시연대를위한토대를쌓아야한다. 그러면우리는계급에상관없이모든사람들이자원을공유하고, 개인적성장을위한기회를얻을미래를더생생히그릴수있을것이다.

## 8 장: 글로벌페미니즘

자유를위해지구촌곳곳에서싸웠던여성투사들은가부장제와남성중심주의에맞서홀로고군분투했다. 지구에최초로출현한인류는백인이아니었으나남성중심주의에최초로반기를든여성도백인은아니었으리라.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서구문화에서신식민주의사고는다양한문화적관행을관통하는어떤기조를확립한다. 이를테면신식민주의사고는언제나누가영토를정복했는지, 누구에게소유권이있는지, 누구에게지배권이있는지에주목한다. 현대페미니즘정치는신식민주의에대한급진적인대응으로출현한것이아니다.

특권계급백인여성들은페미니즘운동의‘소유권’이자신들에게있다고즉각선언함으로써페미니즘운동을지지하는노동자계급백인여성들과빈곤층백인여성들그리고모든유색인종여성들을추종자로전락시켰다. 노동자계급백인여성이나개별적으로운동에참여하는흑인여성들이여성운동이급진화에얼마나많이기여했는지는중요치않았다. 결국계급권력을쥔백인여성들이페미니즘운동을자기네것이라고선언하면서자신들은지도자이며나머지는추종자일뿐이라고못박은셈이었다. 기생적계급관계가현대신식민주의에존재하는인종과민족, 젠더문제를덮어버렸다. 물론페미니즘이런역학관계와그리떨어져있지않았다.

미국페미니즘지도자들이자국내젠더평등의필요에대해처음으로목소리를드높였을때, 그들은비슷한운동이전세계여성들사이에서일어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알아보려하지않았다. 대신에그들은자신들이해방되었기에이제자기네보다운없는자매들, 특히‘제 3 세계’여성들을해방할수있다고선언했다. 이러한신식민주의적온정주의는보수건진보건백인여성들만이페미니즘의실질적인대변자가되어끔유색인종여성들을일찌감치뒷전으로보내버렸다. 급진주의적백인여성들은잘‘언급’되지도않았고, 설령그런대도대개운동의주변부를맴도는괴상한여자들로묘사되었다. 그러므로 1990 년대의‘파워페미니즘’이부유한백인이성애자여성들을성공한페미니스트의예로들었대도전혀놀랍지않다.

사실그들의해게모니는평등에대한페미니즘의레토릭을멋대로가져다씀으로써, 그들이지배계급과결탁해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에머물고있다는사실을교묘하게감추었다.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인종을불문하고) 수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용어를구사하면서도서구제국주의와초국적자본주의에부역하는모습을보고는경악했다. 미국내페미니스트들이전세계여성의평등을위해싸우고자한것은옳은일이었지만, 계급권력을가진개별페미니스트들이제국주의적환상을전세계여성들에게투사해문제가발생했다. 이들은미국여성들이지구상의어떤여성들보다더많은권리를누리고있으며원하기만하면얼마든지‘자유로워질’수있으니페미니즘운동을이끌고전세계여성들, 특히제 3 세계여성들을위해페미니즘의제를정할권리가있다는환상을유포했다. 이러한사고는서구남성들로이뤄진지배집단의제국주의적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의단순한미러링에불과하다.

대부분의미국여성들은식민주의나신식민주의라는용어를모르거나아예사용하지도않는다. 그렇긴하나 대부분의미국여성들, 특히백인여성들이미국이나전세계에서자신들보다입지가좁은여성들을대하는태도를보면식민주의에기반한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 계급엘리트주의가배어있음을알수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이문제에대해각성하지못한채, 전지구적차원의젠더착취와억압문제를다루는한그들의관점은예나지금이나신식민주의를벗어나지못한다. 그런점에서『야간시력 — 신식민지에서의전쟁과계급고찰 Night-Vision: Illuminating War and Class on the Neo-Colonial Terrain』에서급진주의백인여성들이“신식민주의를이해하지못한다면이시대를충실히하게사는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음을눈여겨보아야한다. 각성하지않은백인페미니스트들은미국인으로서의삶, 그러니까그들이예나지금이나제국주의-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와결탁해행동하고있다는현실을좀처럼인정하기꺼렸기에, 이러한부인의벽을허물기위해서는흑인/유색인종여성들과우리의급진주의백인자매들이계속해서벽에몸을던지며저항해야했다.

수많은페미니즘활동가들이인종과젠더, 계급, 국적을포괄하는관점을채택했음에도, 백인‘파워페미니스트’들은여성의평등이제국주의와결부되어있다는식의페미니즘이미지를끊임없이만들어냈다. 여성할례의강요, 태국의섹스클럽, 아프리카와인도, 중동, 유럽에서여성의히잡착용문제, 중국의여아살해같은전세계여성들이처한문제는여전히심각하다. 그러나서구의여성페미니스트들은페미니즘사고와실천을탈식민화해이와같은문제들을마주함에있어서구제국주의가다시금끼어들지못하도록여전히투쟁하고있다. 백인이든흑인이든많은서구여성들이아프리카와중동의여성할례문제에어떻게대응했는지떠올려보라. 대개이지역들은‘야만적이고미개한’곳으로묘사되고그곳에서의성차별주의는미국에서의성차별주의보다여성에게더인정사정없고위험천만하다는식으로그려진다.

탈식민지화된페미니즘은다른무엇보다여성의몸을통제하는성차별주의가어떻게전지구적으로연결되는지부터검토해야한다. 가령, (마른몸을이상적인아름다움으로간주하는문화의직접적인산물인) 생명을위협하는섭식장애나목숨을담보로하는성형수술을여성할례와연결지으면, 전세계에서벌어지고있는이러한관행에자리한성차별주의, 여성혐오 misogyny 가바로여기미국에서는어떤식으로작동하는지파악 (미리링) 할수있다. 서구제국주의의개입없이이런문제들을다루고페미니즘이초국적자본주의에의해서구에서전해진또하나의명품처럼왜곡되지않을때까지다른문화권에속한여성들은이를소비할권리를얻기위해싸워야한다.

미국내급진주의적여성들이계급상승을노려페미니스트인척하는기회주의적여성들과맞서싸우지않는한, 서구글로벌페미니즘의기조는진부한편견을품은채로막강한계급권력을쥔이들의손에좌우될것이다.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인종과민족, 국적의경계를넘어서여성들간의정치적연대를강화하기위해세계곳곳에서매일애쓰고있다. 그러나주류언론은페미니즘이의이런긍정적인개입사례에좀처럼주목하지않는다. 질라아이젠투타인<sup>13</sup>은『증오들－21세기의인종차별과성차별로얼룩진분쟁들 Hatreds: Racialized and Sexualized Conflicts in the 21st Century』에서다음과같은통찰력을보여줬다.

“인종/젠더의그릇된경계와잘못구축된‘타자’를거부하는초국적페미니즘(들)은, 남성화된민족주의와왜곡된국가주의적공산주의, ‘자유’시장세계화를향한중대한도전이다. 초국적페미니즘은개인의다양성과자유, 그리고평등을인정하고북/서와남/동의담론들을관통하고이를넘어서는페미니즘이다.”

글로벌페미니즘의성장에대해공부한사람이라면우리의자유를확보하기위해여성들이중요한업적을성취했다는사실을아무도부인하지못할것이다. 미국여성을필두로서구여성들이이러한투쟁에상당부분기여해왔으며앞으로더그래야한다는사실도부인할수없다. 글로벌페미니즘은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착취그리고억압을종식하기위한전지구적투쟁에손내밀어하나로이어져야한다.

## 9 장: 일터의여자들

미국전체여성인구중절반이상이노동자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이싹틀때이미노동자중 3 분의 1 이상이여성이었다. 내가아는여자들은대부분아프리카계미국인이자노동자계급출신으로, 직장에다니고있었기에나는페미니즘운동초창기에직업이남성중심주의로부터여성을해방해줄것이라는개혁주의페미니즘사상가들의주장을격렬하게비판했었다. 10년도더전에나는『페미니즘－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이렇게썼다. “여성해방의열쇠로일을강조한결과, 수많은백인페미니스트활동가들이일하는여성들을두고‘이미해방되었다’고주장하게되었다. 그들은사실상일하는여성들에게‘페미니즘은당신들을위한것이아니다’라고말한셈이다.”하지만나는저임금노동이남성중심주의로부터빈곤층과노동자계급여성들을해방해주지않는다는사실을경험을통해알고있었다.

특권계급출신으로같은계급의남성과동등한사회적권리를얻는것을우선적인의제로삼은개혁주의페미니즘사상가들이일자리와해방을동일시했을때, 그들에게일자리란높은임금의직업을의미했다. 일에대한그들의생각은대다수여성의삶과무관했다. 페미니스트들이모든여성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일과관련한의제로동일노동동일임금보장을중심에뒀다는것은중요하다. 페미니스트들의저항으로여성들은봉급과직급면에서전보다는더많은권리를손에넣었으나젠더차별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었다. 오늘날수많은대학강의실에서여학생남학생할것없이학생들은이제여성이평등을쟁취했으니페미니즘운동은시효를다했다고주장

<sup>13</sup> Zillah Eisenstein, 1948~ . 미국의급진주의페미니즘이론가이자활동가.-역자주

할것이다. 그들은일반적인대다수여성들이동일노동동일임금을보장받지못한다는사실도, 남자가 1 달러를 받을때여자는 73 센트밖에못받는다는사실도전혀모른다.

이제우리는일이여성을남성중심주의로부터해방시키지못한다는사실을잘안다. 실제로, 고액연봉을받는전문직여성도많고부유한여성도많지만그들역시남성중심주의가일상인곳에서남성들과관계를맺고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적으로자립한여성일수록남성중심주의가당연한관계에서벗어나해방을택할확률이커진다는사실도우리는잘알고있다. 떠날수있기에그녀는떠난다. 페미니즘사고를받아들이고해방되고싶어도, 수많은여성들이경제적으로가부장제남성들에게매여있기때문에원천적으로불가능한일은아니라해도훌쩍떠나기는힘들어한다. 페미니즘운동초기에만해도우리중일부만알았지만이제여자라면대부분다아는사실이있다. 일이여성해방의필요조건은아니지만, 해방되기를원한다면경제적자립이꼭필요하다는현실은바뀌지않는다는사실이다. 우리가경제적자립을일과연관짓기보다는해방의수단으로본다면, 한걸음더나아가어떤종류의일이여성해방을가져다줄지생각해봐야한다. 분명탄력근무제와좋은보수가보장된일이라면노동자에게최대한의자유가허용될것이다.

페미니즘사상에용기를얻어취직을하면해방될수있을것이라믿었던수많은여자들은분노했다. 여자들은가정에서도일터에서도장시간일해야했던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의영향으로여성들이직장에나가일하는상황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게되기전부터도경기침체때문에이런변화는생길수밖에없었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이아니었대도수많은여성들이마찬가지로노동인구에편입됐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이젠더차별에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면지금우리가친권리를누렸을가능성은희박하다. 여성이페미니즘때문에직장에서일할수밖에없게됐다고‘탓하는’것은, 비록이렇게생각하는여자들이많다고해도잘못이다. 점점더많은여성들이일자리를찾게끔이끈건사실소비자본주의다. 경기침체인상황을고려하면한때전업주부를꿈꾸었을지도모를여자가직장을구하지않고서는이제백인중산층가정이누리는계급적지위와라이프스타일을유지하기힘들게됐다.

페미니즘연구는여성들이직업을갖게되면서자존감이높아지고사회공동체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되는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는사실을자료로입증했다. 어느계급에속하는여성이건전업주부로가정에만머무는경우고립감이나외로움을느끼고우울해했다. 여성이든남성이든대부분의노동자는일터에서안정감까지는아니더라도어딘가에속해있다는소속감을느끼게마련이다. 가정에서는문제가발생하면스트레스가상당하고해결책을찾기도까다롭지만일터에서는문제가발생하면모든구성원들이이를공유하며해결책도혼자서찾지않는다. 대개남성들이바깥일을도맡았을때여성들은남성을위해집을안락하고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으로만드는일을맡았다. 여성에게집이란남편과아이가없을때만쉴수있는공간이었다. 가정내에서여성이온종일다른사람을수발하느라바쁘다면집은그녀에게쉬면서편안함과즐거움을얻는공간이아니라일터일뿐이다. 독신여성(대부분혼자살고그들이이성애자인지아닌지는중요하지않다)이야말로직업을가짐으로써가장자유로워졌다. 대부분의여성은좋은일자리를찾을수조차없었으며노동인구에편입되면서가정에서그들삶의질은오히려떨어졌다.

페미니스트들이직장내젠더차별을바로잡자이전에는취직하지않았거나몇몇만예외적으로취직했던고학력자특권계급여성들이경제적으로자족할수있는직장을전보다훨씬더쉽게구하게되었다. 그러나이들의성공이대다수여성의운명을바꿔놓지는못했다. 몇해전나는『페미니즘－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이렇게썼다.

“일터에서여성의노동조건을개선하려는노력이, 여성이더높은임금을받을수있게하고계급을막론하고구직자여성들의취업을도우려는노력과더불어서페미니즘운동의핵심의제를이루었더라면, 페미니즘은모든여성의관심사를아우르는운동으로받아들여졌을것이다. 그러나페미니스트들은출세에혈안이되어여성의고임금전문직진출에만관심을쏟아대다수의여성들을페미니즘운동에서멀어지게했다. 또한페미니즘활동가들은노동시장에진입한부르주아여성이증가했다고해서여성전체가경제력을획득한것은아니라는사실을자꾸외면했다. 그들이빈곤층과노동자계급여성들의경제상황을제대로살폈다면, 여성실업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는사실은물론이고계급을불문하고빈곤층으로추락하는여성들이증가하는추세도포착했을것이다.”

가난은핵심적인여성문제가되었다.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가우리사회의복지체계를와해하여들수록가난하고힘없는여성들에게서삶의기본적인필수요소인쉴곳과음식마저도빼앗을것이다. 상황이이런데도보수적인정치인들은남성이든여성이든대부분실업상태인현실과일자리가아예없다는사실, 그리고설령별이가있다해도많은남성들이아내와아이들을경제적으로부양하기원치않는다는사실을무시하고는해결책이랍시고남성이가족을부양하는가부장적인남성중심주의가정으로의회귀를여성에게내세웠다.

좀더 완벽한 경제적 자립의 길은,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를 뒷받침하는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이미지와는 다른,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에 있을 것이다. 생활임금<sup>14</sup>을 받으며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복돋아주는 일을 하려면 일자리나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사들과 모든 서비스 업종 사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여성과 남성은, 집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학위를 딸 수 있게끔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주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을 발전시켜 집에서도 동영상으로 대학 강의를 수강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강의실에서 보내는 시간과 병행해 늘려야 한다. 정부가 군비가 아닌 복지에 예산을 배정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 모든 시민이 1~2년 가량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 복지제도에 붙는 부정적인 오명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남자도 동등하게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복지제도가 역차별적이라는 오명도 씻길 것이다.

계급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수인 빈곤층 여성과 특권 계급 여성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 여성들, 특히 부유층 여성들의 계급 권력은 상당 부분 다른 여성의 자유를 담보로 한다. 이미 계급 권력을 전멸 여성 집단에서는 소외 계층 여성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을 제공하는식의 경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런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페미니즘 해방 운동에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부유한 개별 여성들, 특히 재산을 상속 받은 여성들은 계급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도 움을 주고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참여 경제 전략을 만들고 있다. 당장은 이러한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면 참여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30년 전 당대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 부문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량 실업 사태가 일상화되고 여성들이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준비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들은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진보주의자들마저 돈 없는 미혼모들의 경제적 곤궁을 비난하고 악마화하는식으로 복지제도를 공격하리라고는 내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닥치자 선구적인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여성 해방과 일의 관계에 대해 재고해야 했다.

오늘 날 일터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아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주는 페미니즘 연구는 많지만 일하는 여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남성 중심주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핀 연구는 많지 않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실직의 원인,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가부장제 하에서 가장의 위치가 보장해주는 확고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 원흉으로 일하는 여성을 지목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페미니즘의 제는 남성들에게 여성과 일의 관계에 관한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들이 일터에서 여성 적으로 돌리지 않게 해야 한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해왔다. 임금이 많건 적건 페미니스트들이 이상적으로 제시한 비전 만큼 일에서 의미를 찾는 여성들은 많지 않다. 여성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경제적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행복을 배양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작업은 앞으로 페미니즘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성공하면 설령 대단한 부자까지는 아니라 해도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전략뿐만 아니라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루어야 한다.

초기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주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의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페미니즘 운동 대중화의 강령이 될 것이다. 이는 모든 여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의 문제이자 대중 조직화로 나아가는 장이 될 것이다.

## 10 장: 인종과 젠더

페미니즘 사상가들에게 인종과 인종 차별주의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 만큼 미 국 페미니즘의 면모를 혁신 한 개입은 없었다. 미국 내 백인 여성들 중 자신이 지위가 흑인/유색 인종 여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을 봐도 백인들만나왔을 테니 이러한 사실을 잘 안다. 백인 여성들은 이렇게 비非 백인이 부자하거나 두 명인 간 취급을 받는 게 순전히 그들이 백인이 아니라서라는 사실도 잘 안다. 미국의 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흑 피부만으로 특권을 가진 범주에 든다는 사실을 안다. 백인 여성들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대도 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sup>14</sup> living wages. 최저 생계 임금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대개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노동으로 양질의 주거, 음식, 교통, 건강보험, 통신, 여가 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 역사주

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정치적으로 각성한 백인 여성들의 단체는 백인 여성들이 만든 그 어떤 단체보다 자신들의 지위가 흑인 여성의 지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 미국사에 있어 이 시기에 백인 여성들이 일기와 비망록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런데 이들 중 다수가 민권 운동에서 여성 해방 운동으로 옮겨갔고 자신들이 민권투쟁 당시 직접 보고 들었던 그 명백한 차이에 대한 인식을 숨기고 부정하면서 폐미니즘 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들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했다고 해서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흑인 여성보다 우월하고, 더 박식하고, 더 잘 배웠고, 더 운동을 ‘이끌어나갈’ 만하다는 의식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었다.

이들은 많은 면에서 (백인 여성과 흑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예 해방론자 선조들과 비슷했다. 하지만 성별이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흑인 남성들은 투표권을 얻을 듯 보이자 백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들과 연합해 백인 우월주의의 기치 아래 모여들었다. 더 많은 권리 를 호전적으로 요구하는 흑인들의 모습을 지켜본 백인 여성들은 이를 발판삼아 자신들의 권리 를 요구하고자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민권 운동 때문에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맞다면, 그들이 새롭게 인지 한다 름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현대 폐미니즘 운동의 이론화 과정에도 반영되었어야 한다.

그들은 폐미니즘 운동을 시작하면서 인종과 젠더를 나란히 놓고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아예 인종을 제거하여 차이를 지우고 부인했다. 젠더를 앞세운다는 말은, 백인 여성들이 무대 중앙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자 여자라면 누구든 폐미니즘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운동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초기 폐미니즘 운동은 인종 간격 차나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리는 자매애라는 유토피아는 대다수의 흑인/유색 인종 여성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폐미니즘 운동이 태동할 때부터 활동했던 흑인 여성들 대부분의 차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폐미니즘 운동이 시작됐을 때도 여전히 인종 통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흑인들이 난생처음으로 백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터라, 폐미니즘을 받아들인 흑인 여성들이 인종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설불리 털어놓지 않았던 대도 그리 놀랄지 않다. 백인 여성은 착취자와 압제자로만 경험했던 세상에서 백인 여성들이 자매애를 외치는 모습을 보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젊은 흑인/유색 인종 여성들은 백인 여성의 인종 차별주의에 의리를 제기했다. 윗 세대 흑인 여성들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 여전히 백인 위주로 긴 하나님 백인들과 함께 교실에서 함께 교육도 받았다. 백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예속된 지위에 놓인 적도 없었다. 우리는 대부분 취업 전선에 내몰린 적도 없다. 우리는 결코 주어진 자리에서 죄죽은 듯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리는 여성 운동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과 백인 우월주의를 비판하는데 있어 적임자였다. 여성의 일종의 카스트 같은 성별 계급에 속해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며 여성에 대한 억압을 깨는 운동을 조직하려 했던 백인 여성들이 오히려, 모든 여성의 공통된 경험의 면에 자리한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꺼렸다. 그 중에서도 인종은 가장 명백한 차이였다.

1970년대에는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 흑인 여성과 폐미니즘』의 초고를 완성했다. 열아홉 살 때였다. 나는 상근직으로 일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남부의 인종 분리 지역 작은 마을에 살다가 스텐퍼드 대학에 진학했다. 자라면서 늘 가부장제적 사고에 저항했으나 대학에 와서야 폐미니즘 정치를 받아들였다. 나는 여성 학강의를 듣는 유일한 흑인 여성이고, 의식이고 양되는 과정에서 인종과 젠더 문제의 이론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종 차별적 편견이 폐미니즘 사고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인정할 것과 이에 대한 수정을 촉구한 것도 그 시절 대학에서였다. 그 무렵 다른 곳에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지닌 흑인/유색 인종 여성들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그 당시 인종 차별과 인종 간격 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좀처럼 직시하려 들지 않았던 백인 여성들은 폐미니즘에 인종 문제를 끌어들였다며 우리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부당하게도 그들은 우리가 젠더에 맞춰 진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는 여성의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며 그런 현실적인 이해야말로 진정한 폐미니즘 정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자매애의 이상을 훼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진정한 자매애를 키워 낼 구체적인 연대의 정치를 세우고 싶었다. 우리는 백인 여성들이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리하여 폐미니즘 운동이 근본적으로 인종 차별주의에 맞서지 않는다면, 백인 여성과 유색 인종 여성 사이에 진정한 자매애가 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인종 문제와 관련한 비판적인 개입은 결코 여성 운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도리어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인종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자 여성들은 모든 층위에 존재하는 차이라는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특권 계급 여성, 특히 백인 여성의 계급이익을 다른 모든 여성들의 이익보다 앞세우지 않는 폐미니즘 운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매애의상을 새롭게 제시했다. 폐미니즘 사상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인종 논쟁은 변증법적이었다. 운동에 참여한 개개인들이 의견을 나누며 폐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을 재고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다. 이는 동시대의 어느 사회 운동에서도 찾기 힘든 광경이었

다. 페미니즘운동의 참여자들이 비판과 도전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의와 해방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진한다는 사실로 이 운동의 강점과 힘을 알 수 있다. 이는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과거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했건, 변화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투쟁과 해방을 이끌어 낼 조건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릇된 신념과 전제에 매달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수년간 나는 인종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려들지 않는 백인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모습도, 반인종 차별주의 페미니즘 운동이 암말로 자매애를 현실로 만들 어줄 유일한 정치적 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했다. 개별 여성들이 백인 우월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종 문제를 비로소 인정하는 순간 겪은 의식의 혁명 또한 목격했다. 이런 멋진 변화들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나의 믿음은 되살아났고 모든 여성들을 향한 연대의식은 더욱 강력해졌다.

페미니즘 사상과 페미니즘이론은 전반적으로 인종 문제를 통한 비판적인 개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유일한 골칫거리는 이론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다. 백인 여성 연구자들이 인종 문제를 페미니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통찰이 백인 여성과 유색 인종 여성 사이의 일상적 관계에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종 차별이 여전한 사회에서 여자들끼리만 반인종 차별적으로 교류하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속한 부류하고 만교류한다. 인종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가 결합된 해로운 장벽들이 여자들을 갈라놓는다. 이런 현실을 바꿔보려는 페미니즘 전략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먹히지 않았다.

사랑의 결속과 정치적 연대가 생성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난을 극복해온 백인 여성과 유색 인종 여성들에게 우리 가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기법과 전략들을 공유해야 한다. 인종이다른 여성들 간의 관계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백인 여성들이 유색 인종 여성들보다 성 차별주의적인 주변 환경에 더 상처받기 쉽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편향적인 페미니즘 연구가 있다. 이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백인 여성의 관심사와 고통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럴 만하다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은 영구화 할 뿐이다. 확실히 유색 인종 여성들이 백인 여성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유색 인종 여성들이 성 차별주의적인 조건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성 차별주의의 희생자가 되기 훨씬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선구적인 흑인 활동가들의 노고가 담긴 페미니즘 운동은, 인종과 인종 차별주의를 재고하는 길을 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류 사회 비평가들은 좀처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말이다. 페미니즘 운동 내부의 인종과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꽤 다양한 글을 써온 페미니즘 사상가로서, 나는 페미니즘 운동 내에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뜯어고칠 부분이 잔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까지 거둔 엄청난 성과를 기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거둔 승리의 의미를 반추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는 일은 반인종 차별주의 페미니즘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 11 장: 폭력 종식하기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개입해 가장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는 단연 ‘가정 폭력’으로 페미니즘 운동은 가정 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물론, 가정 폭력에 대해 보다 폭넓은 문화적인식을 쌓아가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은 기울여왔다. 요즘은 대중 매체부터 초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계각 층에서 가정 폭력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가정 폭력의 현실을 극적으로 폭로하고 수면 위로 올린 주역이 바로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었다는 사실은 묻혀버리곤 한다. 페미니즘 운동이 가정 폭력에 치음으로 관심을 기울였을 무렵에는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폭력만을 다루었으나 운동이 진전될 수록 동성 간에도 가정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이다른 여성에게 학대 당했거나 당하고 있고 아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인 가장이 휘두르는 폭력에 희생되기도 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부장제 폭력은, 좀 더 힘 있는 개인이다양한 강제력으로 다른 구성원을 통제해도 무방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광의의 가정 폭력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동성 간의 폭력,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이 모두 포함된다. ‘가부장제 폭력 patriarchal violence’이라는 용어는 흔히 쓰이는 표현인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과 달리, 듣는 이에게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성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적 사고, 남성 중심주의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너무 나오랜 세월 동안 가정 폭력이라는 용어는, 집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보다는 사적이고, 어떤 점에서 덜 위협적이고, 덜 악만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지칭하는 ‘순화된’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집 밖에서 보다 집 안에서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여성이더많으므로가정폭력의실상은결코그렇지않다. 게다가대부분의사람들은실제로그렇지않음에도가정폭력을성인사이에서발생하는것이라여기고아동에가해지는폭력과는별개이고동떨어진것으로보는경향이있다. 아이들은남편혹은남자친구에게공격받는어머니를보호하려다가학대당하기도하고폭력이나학대를목격함으로써정서적으로큰상처를입기도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주장을이나라많은사람들이받아들이듯이남자가여자와아이들을때려서는안된다는주장에도이견이없다. 그러나가정폭력이성차별주의의직접적산물이며성차별주의가종식되지않는이상가정폭력도사라지지않을거라고하면, 사람들은이러한주장의논리를선뜻이해하지못한다. 젠더에대한사고방식이근본적으로바뀌지않았기때문이다. 나는페미니즘운동이그어떤폭력도거부한다는광범위한의제를표방해야한다고믿는소수의페미니즘이론가다. 페미니스트들은여성에게가해지는가부장제폭력을우선적관심사로삼아야한다. 하지만가부장제하에서자행되는다양한폭력가운데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이가장끔찍하다는인상을주기위해이런유형의폭력에만집중한다면페미니즘운동을더진전시키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 상당수의가부장제폭력이성차별주의에찌든남녀가아동에게휘두르는폭력이라는현실을은폐하게만들기때문이다.

개혁주의페미니즘사상가들은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을어떻게든부각하기위하여성을언제나그리고유일한피해자로묘사하곤한다. 아동에게지독한폭력을휘두르는가해자중여성이많다는사실에는제대로주목하지않는데다, 이것이가부장제폭력의또다른형태임을외면한다. 이제우리는아이가가부장제폭력의직접적인대상이될때뿐만아니라폭력행위의목격자가자될때도학대당하는것과마찬가지라는사실을잘안다. 모든페미니즘사상가들이여성에의한가부장제폭력에대해서도분노해이를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과동일선상에놓았더라면, 대중이가부장제폭력을반남성적의제라고치부하면서이를묵살하기란어려웠을것이며이는앞으로도마찬가지다.

아무리많은연구결과에서여성은비폭력적수단을사용하는경향이많다고한들어릴때여성에게가부장제폭력을당했던피해자라면여성이비폭력적이지않다는사실을잘안다. 단지아동은여성폭력의대상이되는자신의현실에대해집단적인목소리를쉽사리내기힘들뿐이다. 여자와남자가휘두른폭력으로수많은아이들이의료시설을찾은기록마저없었다면여성폭력을입증할증거는어디에도없을지모른다.

나는『페미니즘－주변에서중심으로』의〈폭력을종식하기위한페미니즘운동〉이라는장에서처음으로이문제를제기했다.

“여성에대한폭력을종식하기위해지속되어온페미니즘투쟁은모든종류의폭력을종식하기위한운동의일부로인식되어야한다. 지금까지페미니즘운동은주로남성이저지르는폭력에주목했고, 그결과남자는폭력적이고여자는그렇지않다는, 남자는가해자고여자는피해자라는성차별주의적인고정관념에힘을실어주게되었다. 이런고정관념탓에우리는이사회에서여성도(남성과마찬가지로) 지배하는쪽이강하기에지배당하는쪽에힘을행사해도된다는식의인식을어느정도받아들이고영구화한다는사실을못본척한다. 이러한고정관념은여성이다른사람을강압적으로지배하거나폭력을행사한다는사실도간과하거나무시하게한다. 여자가남자보다폭력을덜행사한다고해서여성폭력의현실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 폭력을없애려면이사회에서폭력사용을지지하는집단으로서남자와여자를모두주시해야만한다.”

어떤어머니가직접폭력을행사하지는않더라도자녀들, 특히아들들에게사회통제를위해서라면폭력을용인할수있다고가르친다면그어머니는가부장제폭력과결탁하고있는셈이다. 이런어머니는사고방식을바꿔야만한다.

확실히대부분의여성들은남성을지배하기위해폭력을행사하지않지만(소수이긴하나남자를때리는여자도있다) 많은여성들이권위를가진사람이그권위를유지하기위해물리력을행사해도좋다고여긴다. 대다수의부모가자녀에게물리적혹은언어적폭력을가한다. 아이의일차양육자는여성이므로지배문화의위계체계에따라권력을부여받은여성들이(이를테면부모자식간처럼) 지배권을유지하기위해강제력을행사하는일은비일비재하다. 현재의지배문화는모두에게폭력을사회통제수단으로허용해도된다는사고방식을내면화시킨다. 남녀관계든부모자식간이든기존의위계질서가흔들리면지배자들은(실행에옮기건아니건간에) 언제든지물리적으로나정신적으로폭력적처벌을가할수있다고위협하면서지배를유지한다.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에대해언론은꾸준히관심을쏟았다(O.J. 심슨재판처럼재판과정을실시간으로중계하기도한다). 하지만미국대중에게왜이런폭력이일어났는지근본원인을설명하거나가부장제에의문을품도록하지는않았다. 성차별주의적사고는남성중심주의를뒷받침하고그로인한폭력을지지한다. 노동자계급이면서실직자인많은남성은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하에서는자신의일에서권력을맛보지못하므로자신들이절대적인권위와존경을얻을수있는유일한장소인가정에서대리만족하라고부추겨진다. 남성들은지배계급남성들에의해사회화되어일터와같은공적세계에서는지배받지만가정이나연인사이같은사적세계에서는

응당권위를 누려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직자가 저임금 노동자로 편입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일터로 나오는 여성들이 늘어날 수록, 어떤 남성들은 성차별주의적인 성역할 위계내에서 자신들이 권력과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폭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떨쳐내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계속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초기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제국주의 적군국주의 간의 유사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의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조차 때로는 군국주의를 용인하고 심지어는 이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착한 편에서 서서나쁜 편과 싸우는 상상을 하거나 나라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제국주의 병사를 상상하건, 성차별주의적 사고가 소년들을 ‘킬러’로 사회화하는 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가부장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 다양한 계급 출신의 젊은 남성들이 끔찍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런 행동에 대한 전국민적 비난은 있었지만 이런 폭력 행위를 성차별주의적 사고와 연관짓는 시도는 찾기 어려웠다.

나는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에서 남성만 폭력을 수용하고, 용인하고, 영구화하는 게 아니라고, 남성만 폭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폭력에 관한 장을 끝맺었다. 나는 폭력을 용인하는 분 위기에 여성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만 관심을 촉구하거나 군국주의를 남성의 폭력 성이 표출된 또 다른 방식으로 만치 부하면 우리는 폭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룰 수 없으며 실행 가능한 저항 전략과 해결책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혹은 국가나 이지구에 대한 남성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미국 문화를 폭력으로 물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문화를 변화시키고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이나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 십대에 대한 폭력, 인종 차별로 인한 폭력 등 어떠한 방식의 폭력이든 사회 통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반대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부모라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폭력 사용 외에 난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방도를 모른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도 폭력 행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수 많은 사람들이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문제를 가부장제 사고나 남성 중심주의와 연결 짓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페미니즘 사상은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모두를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 12 장: 페미니즘 남성성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 운동내에는 극렬 반남성 분파가 있었다. 이 성애자 여성들은 잔인하고, 불친절하고, 폭력적이고, 바람피우기를 일삼는 남성과의 관계에 지쳐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런 남성들 가운데는 사회 운동에 참가한 급진적 사상가들도 다수 있었는데, 이들은 노동자와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했으며 인종 간 경의를 옹호했다. 그러나 유독 젠더 문제에서만은 자신들과 대립각을 세운 보수주의자들만큼이나 성차별주의적이다. 이런 상황에 분노한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찾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분노를 여성 해방 운동의 촉매로 활용했다. 운동이 진보하고 페미니즘 사상이 발전하면서 각성한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남성들 이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남성 중심주의가 진짜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문제가 단지 남성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란 쉽지 않았다. 현실을 직시하려면 좀 더 정교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했다. 성차별주의가 유지되고 영구화되는데 여성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했다. 남성과의 파괴적인 관계에 등 돌리는 여성들이 늘어날 수록 전모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졌다. 개별 남성들이 가부장제가 부여하는 특권을 내려놓는다 해도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남성 중심주의를 토대로 한 체제는 여전히 공고한 테고 거기서 여성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억압당할 것이 명백해졌다.

보수적인 대중 매체는 끊임 없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남성 혐오자로 묘사했다. 페미니즘 운동내에 반남성 분파나 그런 정서가 보인다 싶으면 페미니즘에 흡집을 내기 위해 대중 매체는 그 사실을 집중 조명했다. 페미니스트를 남성 혐오자로 몰아세우는 이면에는 페미니스트가 모두 레즈비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미국 사회의 동성애 혐오 정서에 호소하며 대중 매체는 남성들 사이에 폐진 반 페미니즘 분위기를 강화시켰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고 10년 가까이 됐을 때에야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가부장제가 어떤 식으로 남성에게 해를 끼치는

지논의를시작했다. 페미니즘정치는남성중심주의를맹렬히비판하면서도그외연을넓혀가부장제가남성들에게성차별주의적남성성이라는정체성을부여해남성들역시모종의권리를박탈당했다는인식을포괄했다.

페미니즘에반대하는남성들의목소리는언제나강력한대중적힘을발휘했다. 페미니즘과페미니스트활동가들을두려워하고증오한이남성들은재빨리세력을집결해페미니즘운동을공격했다. 그런데페미니즘운동초기부터소수이기는해도페미니즘운동이미국역사상남성들이지지했던여느급진적인운동못지않게가치있는사회운동이라는걸깨달은남성들이활동하고있었다. 이들은동지로서우리와함께투쟁하고함께연대했다. 페미니즘운동에참여한이성애자여성들은페미니즘을받아들이려애쓰는남성들과연인사이가되기도했다. 그들이페미니스트로전향하느냐마느냐로이친밀한관계가시험대에오르거나끝날위험에말려들게되고는했다.

페미니즘운동내의반남성분파는성차별주의에반대하는남자들이존재한다는사실에분개했다. 그런남자들때문에모든남성은억압자라거나모든남성은여성을혐오한다는자신들의주장이힘을잃게됐기때문이다. 이런주장은억압자/피억압자라는단순한범주화로남성과여성을극단적으로갈라놓음으로써손쉬운계급상승과가부장제권력배분을노렸던페미니스트들의이익과합치했다. 이들은모든여성을피해자로재현하기위해모든남성을적으로간주했다. 남성에대한적대는일부페미니스트활동가들의계급특권과계급권력을향한욕망에대한비판을봉쇄하는수단이었다. 모든여성들에게남성을거부하라고요구했던이활동가들은여성이남성과공유하는돌봄의유대도, 성차별주의자인남성이여성을묶어두는(부정적이든긍정적이든)경제적·감정적결속도직시하려들지않았다.

남성을투쟁의동지로인정하자고목소리를높였던페미니스트들은결코대중매체의관심을받지못했다. 남성을적으로규정하고악마화하는태도를비판하는우리의이론적연구도반남성주의자여성들의관점을변화시키지못했다. 그리고남성다움에대한부정적인묘사에대한반동으로반여성주의남성운동이시작되었다. 나는‘남성해방운동’에관해쓰면서이운동의이면에자리한기회주의에주목하라고이야기했다.

“이런남성들은자신을성차별주의의피해자라고규정하며남성해방에주력했다. 이들은경직된성역할이자신들을피해자로만든근본원인이라고했으나, 그들은남성성에대한개념을바꾸고자하면서도여성이당하는성차별주의적착취와억압에는그리관심을보이지않았다.”

요모조모살펴보면남성운동은여성운동의가장부정적인모습을빼닮았다.

페미니즘운동내에서반남성주의분파의규모는작았으나여성페미니스트는남성을혐오한다는대중의인식은쉽게바뀌지않았다. 게다가남성들은페미니즘을남성혐오운동으로규정함으로써남성중심주의에쏠리는관심을다른곳으로돌릴수있었다. 페미니즘이론이남성성에대해좀더해방적인비전을제시했다면, 누구도이운동이반남성주의성향을띤다고호도하지못했을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은남성이성차별주의에반대하려면무엇을해야할지나기준의남성성이어떻게대체되어야할지같은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했기에다수의남녀를끌어들이는데실패했다. 페미니즘운동혹은남성운동은가부장제적남성성에대한대안으로지금보다좀더‘여성화’된남성성을내세웠다. 이여성화라는개념은성차별주의적발상에서비롯되었기에애초에대안으로는부적절했다.

뭐든간에남성성의비전은유일무이한존재로서자기자신에대한자존감과자기애를정체성의기본으로삼아야한다. 지배의문화는자존감을무너뜨리고, 타인을지배할때비로소존재감을느낀다는사고방식이뿌리내리게한다. 가부장제남성성은남성들에게그들의존재이유, 그들의자의식과정체성이타인을지배하는능력에있다고가르친다. 이런현실을바꾸려면이지구를, 권력을갖지못한남성들을, 여성과아이들을지배하는남성중심주의를남성들은비판해야하고이에맞서야한다. 이와동시에페미니즘남성성이무엇인지명확하게이해해야만한다. 그것이어떤모습인지알수없다면어떻게그렇게되겠는가? 하지만여성이든남성이든페미니즘사상가들은아직도페미니즘남성성이무엇인지명확하게이해하지못했다.

사회정의를위한혁명적운동이그러했듯이, 우리는해결책을제시하기보다문제를규정하는데더능하다. 가부장제적남성성은남자들을병적으로자기도취적이게하고유치하게굴게하고, 단지남자로태어났다는이유로주어지는(어느정도상대적인)특권에심리적으로의존하게끔부추긴다. 많은남자들이자기충족적인핵심정체성을세우지못했기때문에이러한특권이사라지면자기삶이위협받는다고느낀다. 그렇기때문에남성운동은남자들에게어떻게자신의감정을되찾는지를가르치고내면의잃어버린소년을되찾아영적이고정신적인성장을도모하라고적극적으로격려했다.

이제껏남자아이들에게말을걸어, 성차별주의에뿌리를두지않은정체성을키우는법을알려주는적절한페미니즘도서들은없었다. 성차별주의에반대하는남성들이소년시절, 특히사춘기남자아이들의성장에중심을두고비판의식을일깨우는교육을한적은없다. 이러한교육의공백으로인해이제남자아이의양육에대한논의가전국민적관심사로대두해도거기에페미니즘적관점은낄자리도없고설사일부를차지한대도거의찾기힘들

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엄마는 아들을 온전하게 키울 수 없고, 사내 아이들은 규율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가부장제 군국주의 적 남성 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위험한 여성 혐오 적명제가 부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들에겐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명하고 자애로운 페미니즘 정치라면 남자 아이들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가부장제는 그들을 치유하지 않는다. 가부장제가 그럴 수 있으면, 남자 아이들은 모두 문제 없이 잘 성장했을 것이다.

미국 대다수 남성들은 자기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설령 가부장제에 매달린다고 해도 그 것이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일한 만큼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여자들이 더 많은 계급 권력을 쥔는 상황에서 돈 없고 힘 없는 남자들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책임지지 못한다. 수많은 남성들은 가부장제의 약속이 실은 불의 와지배에 뿌리를 두며 약속이 지켜진 대로 자기네를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해방적 비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괴로워 한다. 남성들이 애초에 그들의 영혼을 말살해버린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 사고 방식을 되새기며 해방 운동을 맹비난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소년 시절에 그랬듯이 길을 잃고 헤맨다.

소년과 남성을 보듬어 안으면서, 소녀와 여성의 꿈꾸는 모든 권리를 소년과 남성도 누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페미니즘 남성 성을 수용하는 페미니즘이라면 미국 남성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 특별하게도 페미니즘적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돌보고 공정하는 방식으로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페미니즘 남성 성이 널리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법을 보여줄 새로운 운전략, 새로운 이론, 길잡이가 꼭 필요하다.

## 13 장: 페미니스트 부모되기

아동 문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은 현대 급진 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여성들은 성차별주의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반성 차별주의 운동이 필요 없는 미래 세상을 꿈꾸었다. 처음에는 주로 성차별주의 적 성역 할과 아이들이 태어나자 마자 성역 할이고 정되는 방식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여자 아이에게 집중되는 성차별주의 적인 편견에 대한 공격 그리고 대안 이미지 제시에 노력을 집중했다. 때때로 페미니스트들은 남자 아이를 성차별주의에 물들지 않게 키워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식의 주장으로 흘렀다. 남자 아이들이 언제나 더 많은 특권과 권력을 친다는 전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자 아이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계속 부채질 했다.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맞닥뜨리는 주요 난관 중 하나는, 가족 내 성차별주의의 주요 전파자가 대개 여성 양육자라는 사실이었다. 성인 남성 양육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여성들은 자녀에게 성차별주의 적 사고를 주입해 왔고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 역설적이게도 여성인 가장인 가정은 으레 모권 중심적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한다. 실제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인 여성들은 집안에 남성이 없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끼고 자녀들,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성차별주의 적 가치를 전수하기에 더욱 열을 쏟는다. 최근 들어 보수적인 주류 전문가들은 편모는 남자 아이를 제대로 양육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인종과 계급을 막론하고 젊은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자애롭고 동시에 강인한 남성들 중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로 이를 알 수 있다. 같은 이야기지만, 많은 이들이 여자 혼자 아이를, 특히 아들을 키우는 데 어떻게 그를 가부장적 인남성으로 키우겠느냐고 생각한다. 이 또한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적 지배의 문화에서 아이들은 권리 를 누리지 못한다. 페미니즘 운동은 미국 사회 운동 가운데 우리 문화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며 부모가 자식을 자기의 지대로 조종하는 소유물로 본다는 사실에 주목한 최초의 운동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흔하다. 문제적인 것은, 대부분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일상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지는 폭력의 주범이 주 양육자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아 했다는 사실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가정에서의 남성 중심주의 때문에 성인 남성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히 혁명적인 성과이지만 사실 수많은 아동이 성인 남녀 모두에게 언어적 육체적 폭력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모성적 가학증 maternal sadism 은 종종 어머니가 아이를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데, 아동에 대한 성인 여성의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이 어떻게 비판과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이론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다.

아동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지배의 문화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성인 남성과 여성의 독재 하듯 이를 지배할 수 있다. 의료 기록을 통해 이 사회의 아이들이 매일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런 학대 중 상당수가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다. 여성들 또한 이런 폭력의 영구화에 결코 남성 못지 않게 기여했다. 성인 여성들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페미니즘 운동이 직시하려 들지 않으면 페미니즘이론과 그 실천 사이에 심각한 간극이 생긴다. 남성 중심주의 만강조하면 페미니즘이론가들을 포함한 여성들이 여자가 다양한 형태로 아동을 학대하는 현실을 쉽사리 무시하게 한다. 우리 모두가 부상적 사고에 익숙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수단으로든 힘 없는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배의 윤리학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정도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 위계질서 안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용인되듯 아이에 대한 어른의 지배도 용인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이를 학대하는 어머니에게 관심이 쏠리기를 진심으로 원치 않는다.

나는 이따금씩 예전에 참석했던 근사한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한다. 파티 참석자 중에 어린 아이들을 훈육한다며 아이가 말을 들을 때까지 아이의 연한 살을 세계 꼬집고 놓아주지 않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은 아이를 엄하게 키운다며 이 구동성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바로 아동 학대라고 지적하면서 그녀는 그 남자 아이가 훗날 여성을 학대하는 남성으로 자라도록 씨앗을 뿌리는 셈이라고도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 이 점을 확실하게 짚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여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를 세계 꼬집으며 힘으로 제압한다고 이야기했다면 곧바로 이를 학대라고 인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 입는 대상이 아동일 경우, 이런 부정적인 지배를 용인한다. 이런 일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아동에 대해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이 어머니에 의해 아버지에 의해 매일 자행되고 있다.

이나라의 아이들은 진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페미니즘이 이끌어낸 변화와 가부장제 사고가 충돌하면서 집집마다 남성의 지배를 정상으로 여겼던 시절보다가 정이 더 옥죄치열한 전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운동을 촉매로 가부장제가 정에서 남성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지금도 마찬 가지라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러한 폭로는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성인 여성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학대의 생존자임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치료과정이라는 사적인 장에서 공론의장으로 끌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폭로 덕에 현재 벌어지는 학대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맞설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아동에 대한 남성의 성적 학대에만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학대가 남성 중심주의와 직결되며 가부장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대중이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었다. 아동에 대한 남성의 성적 학대는 여성에 대한 학대보다 많이 일어나며 더 많이 보도되지만, 그렇다 해도 아동에 대한 여성의 성적 학대도 남성의 학대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남성의 학대 행위를 비판하는 만큼 학대를 일삼는 여성 역시 철저하게 비난해야 한다. 성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다.

모욕을 줘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또 다른 학대를 낳는 토대가 된다. 남자 아이들은 주로 성차별주의적 남성 성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런 학대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대개 성차별주의자인 성인들(특히 어머니들)과 다른 아이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만약 남성 양육자가 반성 차별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이 밴 사람이라면 아이들은 일상에서 페미니즘을 경험할 수 있다. 페미니즘 사상가와 활동가들이 아이들에게 성차별주의적 편견이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교육 현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소년들과 소녀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페미니즘 운동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단지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이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남성 도육아에 똑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화적인식을 일컬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성과일 것이다. 미래의 페미니즘 연구는 반성 차별주의자 남성의 육아가 아이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했는지 그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페미니즘 육아 전반에 대해서, 반성 차별주의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선구적인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모성애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 높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면서도 남성 양육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절대 간과하지 않았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찬사를 여성의 어머니 역할의 긍정적인 면을 펼쳐하고 평가 절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여성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됐을 무렵 페미니스트들은 육아를 여자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자신을 더 긍정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어 줄 직업과 대체점에 놓고 서는 어머니 역할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몇몇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어머니 역할을 경시하고 임금노동을 과대 평가하는 풍조에 맞섰다.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에서 이주제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여전히 성차별주의가 만연하고, 개인 간에 질투와 불신, 적대감, 악의를 조장하는 불필요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 풍조에서 의 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끼며 때로는 완전히 불만족스러워진다. … 임금 노동을 즐기고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그들은 이 일에 시간을 너무 빼겨 다른 만족감을 추구할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 일을 하는 덕분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경제적 자립까지도 할 수 있다면, 대다수의 여성들은 일에서 인간적인 욕구를 온전히 채울 수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누군가를 돌보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어머니 역할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어머니 역할을 좀 더 균형 있게 그리려고 노력을 기울이자 주류 가부장제 문화가 한 부모 가정 특히 여성의 입장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비난은 복지 문제와 관련될 때 특히 혹독했다. 싱글맘들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취고리 만한 임금으로도 얼마나 수완 좋게 아이를 키우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짜무시한 채, 가부장제 문화는 유독 문제 있는 편모 가정을 골라그게 일반적인 양비난하고는 이 가정에 가장 이자수장으로 남자가 있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에 몰아닥친 역풍 가운데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비난 만큼 아동복지에 해로운 것도 없었다. 그 어떤 가족 형태보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된 가부장제 가족을 높게 치는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네 가족이 일 반적인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남성이 가장이라 한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아동복지가 더 잘이뤄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가부장제 가정을 이상화하는 인식은 여전히 공고하다. 아이들은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지배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라면 사랑을 꽂피울 수 없다. 부모가 혼자 든 아니든, 동성애자 든 이성애자 든, 가장이 여성인 든 남성이 든 사랑이 넘치는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를 자존감을 가진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할 것이다. 앞으로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세상의 부모들에게 성차별주의를 종식하는 것이 어떻게 가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페미니즘 운동은 가족 친화적이다. 남성이든 여성인 든 성인인 이가 부부장제적으로 아이를 지배하지 않아야 비로소 아이가 안전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다.

## 14 장: 결혼과 동반자 관계를 해방하기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정점을 찍었을 때 결혼 생활 역시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다수의 이성애자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든 배경에는, 친밀한 관계 특히 젠더 차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오랜 결혼 생활에서 경험한 남성 중심주의의 자리했다. 페미니즘 운동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숫처녀가 아니거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충실히 않은 여성은 비난하면서도 남자는 성적 욕망을 품거나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도 용인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잣대와 충돌했다. 성해방 운동은 결혼 제도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더욱 고취시켰으며 특히 안전하고 저렴한 피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초기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사적인 유대와 가족 관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그 도그럴 것이 계급과 인종을 불문하고 가부장적인 부모로부터 든 남편으로부터 든 이런 관계에서 여성들이 남성 중심주의의 맹공을 받기 때 문이었다. 어떤 여자가 성차별주의적인 남성 상사나 자신을 지배하려는 타인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맞선다 해도 막상 집에서는 동반자의 뜻에 굴복할 수도 있다. 오랜 결혼 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성애자 여성들과 레즈비언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현대 페미니즘 운동은 결혼 생활을 또 다른 형태의 성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친밀함과 보호, 존중 같은 요소를 제물로 남성이 가정을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성차별적 결합을 집중 조명했다.

초기 많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어떤 이성애자 여성들은 성차별주의자 남성들과 불평등한 관계를 맺느니 차라리 독신이나 레즈비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어떤 이들은 일부 일처제 때문에 여성의 몸이 결혼한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비而非 일부 일처제를 선택하거나 결혼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우리는 비록 가부장제 사회 일자리라도 국가가 승인하는 결혼을 택하지 않고 남성 파트너와 함께 살면 남성들이 여성의 자주성에 대해 건전한 존중심을 표하리라 믿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 노예제를 끝장내자는 주장을 지지했고, 부부 간 성 폭행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성 관계를 요구할 권리와 성적 만족을 추구할 권리를 옹호했다.

정숙한 여성은 성에 관심이 없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기에 섹스에 무관심해 진동 반자와는 만족스러운 섹스를 할 수 없다는 바로그 이유 때문에 페미니즘 적 사고를 받아들인 이성애자 남성들도 많았다. 이 남성들은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 배우자에게 성에 대해 해방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성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여성의 성생활로 여성의 도덕성을 재단하려는 생각들을 불식 시킴으로써 친구가 아닌 여성에게 찍는 낙인을 없앤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성의 성적 만족감을 남성의 만족감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았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굳이 좋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했는데 이런 주장은 남성의 성적 결함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셈이었다.

이런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 성차별주의자 남성들은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레즈비언이라거나 '끝내 주는 씹'이면 어떤 페미니스트든지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끊임 없이 주장했다. 실제로 페미니즘의 반란으로 인해 가부장제적인 관계에서 남성과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친밀한 유대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남자들에게 성적 행동 패턴을 바꾸라는 요구보다는 여성은 성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바꾼, 여성 섹슈얼리티의 페미니즘 적변화를 더기꺼이 받아들였다. 페미니즘의 의제로 이 성애 문제가 떠올랐을 때 수없이 논의된 주제가 바로 전희 없는 섹스였다. 이 성애자 여성은 남성의 강압적이고 여성의 즐거움을 배려하지 않는 섹스에 넌덜머리가 난 상태였다. 페미니즘이 여성의 성적 쾌락을 중요시 한 덕분에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행동을 비판하고 이에 맞설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됐다.

성적 자유면에서 여성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일처제에 대한 비난은 성병의 유행으로 여성의 자유 분방한 성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워지자 서서히 잊혀갔다. 남성이 여성을 속이는 것이 용인되는 가부장제 문화에서 에이즈처럼 남성이 여성에게 옮기기가 더 쉬운 치명적인 질병들이 출현하자 이 성애자 여성은 다양한 파트너를 고르기가 더 힘들어졌다. 명백하게도, 가부장제 하의 성 간의 결합에서 일부 일처제를 강조 할 수록 커플은 성차별주의 적폐 라디엄을 벗어나기가 더 힘들다. 게다가 수많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하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벗어난 여성은 피해를 입는 반면 남성은 간단히 더 많은 권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령 여성들이 다른 짝이 있는 남성과도 스스럼 없이 섹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성들은 짝이 있는 여성에게 성적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혹여 관심을 갖더라도 그 여성의 짝인 남성에게 계속해서 특권을 양도하며 심지어 그녀와 사귀려 할 때 상대 남성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까지 한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를 거부할 자유가 있는 여성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든 아니든, 여성의 몸이 남성의 소유라는 통념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한 통념을 없애기 위해 애쓰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이 성적 쾌락에 대한 성차별주의 적통념을 비판함으로써 긍정적 인 변화를 이끌어 냈듯이, 이 또한 여성과 남성이 좀 더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성적 유대 관계에 있어 난본 질적 변화는 남자도 집안 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 같은 가정 내에서의 다른 변화로 이어졌다. 요즘은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간에 남자도 가사 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다. 젊은 여성들도 가사 노동 분담을 토론거리로도 보지 않는다. 그들에겐 가사 노동 분담이 당연한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가사 노동 분담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며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은 육아와 집안 일을 전담하고 있다. 대체로 남자들은 집안 일과 육아에 대한 평등보다는 침실에서의 평등을 더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했다. 일단 계급 권력을 얻게 된 개별 여성의 자신도하기 싫고 남성 동반자도 하려들지 않는 가사 노동을 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じ 않다. 하지만 이 성애자 커플이 도 우미를 고용해 성차별주의 적 관점에서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일을 처리할 때, 대개 그 피고용인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건 여성의 몫이다.

여성의 삶에 유일하게 만족감을 주는 삶의 목적으로 여겨지던 어머니 역할에 대한 비판 만큼 결혼 과장 기적인 동반자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킨 요소도 없었다. 여성의 가치가 더 이상 출산을 하느냐 양육을 하느냐로 결정되지 않게 되자, 자녀를 원치 않는 맞벌이 부부가 등등하게 결합하는 평등 결혼 peer marriage 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더 쉽게 등등해질 수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은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할일로 못 박다 보니 여성은 육아에서 젠더 평등을 이루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운동이 활기를 띠자 그 전만해도 모유 수유를 경시하던 가부장제적 의료계가 갑자기 모유 수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아가 집요하게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성애자 레즈비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더 많은 육아 책임을 지우는 실례 중 하나일 뿐이다. 확실히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아기 가태어나고 그들의 관계가 좀 더 성차별주의 적인 것으로 추락한 경험을 겪었다. 하지만 커플들이 특히 육아 문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평등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등은 실현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육아를 열심히 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아동 복지와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 가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였다. 남성이 육아를 분담할 경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든 동거를 하든 따로 살든 간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더 좋아진다. 페미니즘 운동 덕분에 예전에 비해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훨씬 많아졌으나 아직은 젠더 평등 비슷한 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육아를 똑같이 분담하면 육아를 더 긍정적이고 성취감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물론 일하는 부모,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업무 분담 때문에 육아

에더참여하고싶어도현실의벽에가로막히고는한다. 업무를탄력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대대적인변혁을꾀하지않는다면, 남성이육아에자신의시간과공간을할애하도록삶을꾸릴수있는세상에서살지못할것이다. 이런세상에서라면남성들이육아에좀더열성을보일것이다. 하지만그런날이오지않는한, 일한만큼의봉급도못받으면서과로에시달리는수많은남성노동자들은여성들도마찬가지로과로에시달리고일한만큼돈을받지못한대도한치의망설임도없이여성에게육아를떠맡길것이다.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아래의노동현실에서는여성이육아에충실했을수도없다. 현실이이렇다보니일을계속할수도있었을여성들이집에들어앉게되었다. 여성들을직장에서쫓아내고집으로돌려보내는것은남성중심주의에기반한성차별주의사고라기보다우리가‘부모없이자라는’아이들의사회를만들고있다는두려움이다. 많은여성들이경쟁적인출세지상주의에쫓겨사랑하는이들을보살필시간이거의없다는사실을깨닫는다. 누구도남성에게육아전담을위해직장을관두라고하지않는것만봐도이사회에성차별주의적인성역할이어느정도만연해있는지잘보여준다. 우리사회의많은이들이여전히여성이남성보다더육아에적합하다고믿는다.

상당수의여성들이한편으로는모성의가치를폄훼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특히부모와아이의유대감같은모성이주는특별한지위와특권을누렸기에, 페미니즘사상가들의바람만큼육아에서얻는자부심을잠성들에게쉽사리내주려하지않았다. 어떤페미니즘사상가들은다른모든분야에서는생물학적결정론을비판하면서도어머니되기에관해서만은생물학적결정론에기댔다. 그들은육아에서어머니만큼아버지의역할이중요하며아버지도어머니만큼아이를잘키울수있다는생각을전적으로받아들이지못했다. 성차별주의적사고가만연한상황에이러한모순까지더해지니, 육아문제에맞닥뜨리면젠더평등을주장하는페미니스트의목소리에힘이실릴리만무했다.

요즘들어대중매체는끊임없이결혼이다시유행한다는메시지를퍼뜨리고있다. 결혼은결코구닥다리유물이아니었다. 결혼이다시유행한다고할때그진짜의미는성차별주의적의미가강화된결혼이다시‘돌아왔다’는것이다. 예나지금이나성차별주의적토대위에세워진결혼은속부터곪아있으며그관계가오래가기힘들다는게명백하므로페미니즘운동은이런현실로애를먹고있다. 성차별주의를바탕으로하는전통적인결혼이점점더성행하고있다. 이런결혼은가정에서페미니즘반란의촉매로작용할불행과불만의씨앗을품고있는한편, 이러한결속이순식간에끓어지는경우가잦다는점에서과거의결혼과는다르다. 요즘사람들은젊은나이에결혼해서젊은나이에헤어진다.

결혼과동반자관계에서나타나는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는우리사회에서결별과이혼을낳는일등공신이었다. 성공적인결혼생활을다룬최근연구들을보면, 하나같이젠더평등이두사람이서로를긍정하게하는환경이된다고한다. 이러한긍정은더큰행복을만들어내고설령그결혼이영원히지속하지않을지라도유대의토대가된동지로서의우정은계속유지된다. 앞으로의페미니즘운동은가부장제결혼생활에대한비판에시간을덜쏟는대신대안제시에더주력할것이다. 평등과존중이라는원칙, 그리고동반자관계를실현하고오래지속하려면상호만족과성장이필수라는믿음의원칙위에세운동료애적관계 peer relationships 의가치를알리는데힘쓸것이다.

## 15 장: 페미니즘성정치 — 상호자유의윤리학

페미니즘운동이일어나기전, 성해방운동이일어나기전에는, 대부분의여성들이왕성한성적활력을드러내기란불가능한일까지는아니더라도무척어려운일이었다. 여성은태어나는순간부터성차별주의적사고를주입받는다. 즉성욕과성적쾌락은늘그리고오로지남성의전유물이며여성으로서의덕목을지니지못한여성들이나성적욕구나갈망을드러내는것이라고배운다. 성차별주의적사고는여성을성녀또는창녀로만구분했으며여성이건강한성적자아를구축할만한토대는존재하지않았다. 다행스럽게도페미니즘운동은곧장전형적이고성차별주의적인성에대한고정관념에맞섰다. 마침그무렵미국역사상처음으로누구나믿을만한피임기구를쉽게구하게되었다는점도운동에유리하게작용했다.

믿을만한피임기구가등장하기전에는여성이성적으로자기주장을하는경우언제나원치않은임신과불법적인임신중단의위협이라는‘징벌’로이어졌다. 믿을수있는피임기구가존재하기이전의여성들이감내해야했던각종성병과공포를세상에알려줄증거들을우리는충분히모으지못했다. 여성이섹스할때마다임신의위험을감수해야하는세상, 남성은섹스를원하고여성은그걸두려워하는세상이라니나로서는떠올리는것만으로도공포스럽다. 이런세상에서욕망하는여성은자신의욕망과두려움이겹쳐진다는사실을알았을것이다. 우리

는 남성의 성적 접근을 여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물리쳤는지, 지속적인 부부 간 성폭력에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원치 않은 임신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죽음까지 무릅썼는지에 대해 알려줄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페미니즘 성혁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여성 섹슈얼리티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은 잘안다.

엄마들이 감내했던 성적 고통과 괴로움, 성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과 증오를 목격해왔던 우리가 더욱 주체적으로 성적 욕망을 표현하게 됨과 동시에 자유와 쾌락, 환희를 약속하는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들게 되다니 실로 근사했다. 요즘에는 여성의 성욕을 표현할 때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별로 없기에 우리 문화에서 가부장제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퍼부은 공격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은 삭제돼 버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 진틈을 타임 신중 단권을 불법화하려는 세력은 임신 중 단수 술금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작용할지 제대로 논의도 않은 채, 태아를 죽일지 말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기를 쓴다. 우리는 여전히 성적 쾌락이라고는 모르는, 섹스가 오로지 상실이자 위험, 위협, 소멸인 줄 아는 세대의 여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

여성이 성적 자유를 누리려면 믿을 만하고 안전한 피임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성 행위의 결과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 한편 여성의 성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한편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초기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원할 때, 원하는 상대와 섹스 할 수 있는 권리와 얻기 위한 정치 투쟁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반 성차별주의 적 방식으로 우리 몸을 존중하는 법이나 해방된 섹스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비판적 페미니즘의 식학교육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여성들은 성적 자유와 성적 문란함을 같은 것으로 여기며 끔부 추겨졌다.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성애자 남성들 대부분은 성적으로 해방된 여성은 어떤 요구도 없이 특히 정서적 친밀감 같은 걸 안달하지 않고 쉽게 섹스에 동의 하리라고 멋대로 생각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이 성애자 페미니스트들도 가부장제 남성이 주입한 틀에 자신의 행동을 끼워 맞췄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성적 문란함과 성적 해방이 절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페미니즘 운동이 한창 ‘뜨거울’ 때 급진 주의 레즈비언 활동가들은, 가부장제 문화 환경에서 여성의 해방된 성애를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이 성애자 여성들에게 남성과의 유대를 재고해보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페미니즘 운동에도 움이 되었다. 이는 이 성애자 여성에게는 이 성애적 상황을 끊임 없이 비판적으로 경계하게 이끌었고, 레즈비언들의 강점을 긍정적으로 부각하면서도 취약점도 드러내는 식으로 레즈비언들을 주목하게 했다. “페미니즘은 이론이고 레즈비언이즘은 실천이다”라는 유명한 구호에 마음이 끌려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과의 관계로 옮겨간 이 성애자 여성들은 이내 이런 관계에서도 다른 관계 만큼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외에도 갖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레즈비언 관계가 이 성애 관계 만큼, 혹은 그보다 더 좋은지는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관계에는 지배하는 쪽과 부종하는 쪽이 있다는 학파 학적 SM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배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로맨스와 동반자 관계의 관념을 얼마나 깨부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성애 관계처럼 레즈비언들의 성적 자유 분방함도 성해방과 동일 시될 수는 없었다. 개인의 성적 취향과 관계 없이 이들을 동일 시해 감정적인 고통을 겪은 여성들은 섹스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 그리고 남성 중심주의와 성폭력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남성과 사귀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불행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다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

성적 자유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에 대한 환멸로 인해, 수많은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이러한 경험들이나 동성 친구나 동료가 직면한 파탄난 관계를 외면하고 떠나갔다. 이 때 이들의 마음 속에는 모든 성행위, 특히 남성과 맺는 성 관계에 대해 억눌린 적개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때 여성들에게 ‘적과의 동침’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외롭게 목소리를 냈던 급진 주의 레즈비언들에게 이제 남성과의 관계에 환멸을 느끼고 동성과 유대를 맺기로 택한 이 성애자 여성들이 합류했다. 갑자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 특히 성행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논의가 모든 성교는 성적으로 강제된 것이며 남성의 성기 삽입은 강간이라는 식으로 흘렀다. 한동안 이런 이론과 이를 설파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몇몇 여성들이 새롭고 남다른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애쓰는 젊은 여성들의 의식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여성들 중 상당수가 양성애를 택하거나 여성의 성적 접촉 방식을 전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남성과의 관계를 택했다. 하지만 대다수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에 간단히 등을 돌렸다. 그러고는 성적 자유에 대해 진부한 성 차별주의적 개념으로 돌아갔는데, 때로는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려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성적 쾌락과 위험, 성적 자유와 굴레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의 결과로서 불거진 충돌과 모순이 성적 가학 피학증의 매력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페미니스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권력 문제와 단단히 이어져 있다.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평등에 대해 아무리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정작 성 용과 성적 열정의 발현 문제만 나오면 성적 무대에서 피어 오르는 권력과 무권력의 역학이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단순화된 개념을 봉괴시켰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가 성적인 가학 피학적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즉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자의 입장이 용인되는 부 치와 펨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폭로 만큼 페미니스트가 이 성애를 비난했던 근거를 뒤흔든 것도 없었다.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이 레즈비언이건 이성애자건 성적 가학 피학적 관계를 맺으면서 해방된 여성의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자, 섹슈얼리티에 관한 모든 급진적인 페미니즘 논의는 끝이나고 말았다. 이 문제는 가부장제 적포르노 그래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와 얹혔다. 페미니즘 운동을 분열시키고 붕괴 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문제와 직면하자, 1980년대 가저 물어갈 즈음 섹슈얼리티에 대한 급진적인 페미니즘 담론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게 되었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이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페미니즘 운동을 황폐화 시킨 것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공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한 페미니스트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청교도적이고 섹스에 반대하기까지 했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성해방을 촉구하고 장려하던 장에서 성폭력과 피해자 문제에 더 집중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그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다. 한때 여성의 성적 자유를 누구보다 열렬하게 옹호했던 주류의 원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이제는 성적 쾌락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며, 금욕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여성의 성욕과 성생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던 여성들이 점점 페미니즘 성정치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페미니즘 운동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본래 반反 섹스 주의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성적 열정과 성적 쾌락에 관한 선구적인 페미니즘 담론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채 무대 뒤로 밀려났다. 이에 여성과 남성은 그 빈 자리를 가부장제가 제시하는 성적 자유로 채웠다.

성 혁명과 페미니즘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이 성애자 여성들이 단지 남성이 원한다는 이유로 섹스를 한다는 것을, 남성이 든 여성의 든 짊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사적으로 든 공적으로 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환경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성녀 아니면 창녀라는 성차별주의 적 도식이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에로틱한 환상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가부장제 적포르노 그래피가 지금도 대중 매체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원치 않은 임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십대들이 대개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한 섹스를 한다는 것을, 이 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오랜 세월 부부 생활이나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여성들이 섹스 서비스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운 페미니즘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해방된 성적 실천이란 어떤 것인지 탐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해방된 성생활 그리고 성적 쾌락과 충만함을 서로의 선택과 합의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가장 잘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각자의 성차별주의 적사고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이성애의 희열을 경험할 수가 없다. 아직도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남성의 성행위가 음경의 단단함과 지속에 만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남성의 성행위에 관한 이런 인식 자체가 성차별주의 적사고에 얹매인 결과다. 남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의 욕구에 봉사하고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성차별주의 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 많은 여성 또한 삽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성해방에 대한 담론과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한창일 때, 여성들은 남성들이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평등은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섹슈얼리티 문제만큼은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남성들이 침대에서 성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과 즐거움을 주고 받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성행위가 (즉 그녀가 섹스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남성의 욕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성차별주의 적 전제는 끝내 버리지 않았다. 성욕이 강하고 성적으로 해방된 여성과의 섹스는 재미 있지만, 이들 여성들이 섹스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재미는 없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성애자 남성은 성욕을 해소 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남성들이 지닌 여성의 몸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생각뿐 아니라, 여성의 몸이 남성의 것이라는 성차별주의 적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동성애자들이 성애자들 해방된 관계라면 양자가 응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관계를 가질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남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도 부응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파트너의 성적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도 계속될 것이다.

진정으로 해방된 페미니즘 성정치라면 언제나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러한 주체성은 여성의 자신의 성적 신체가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항상 대기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성매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들을 비롯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물건이나 서비스와 자유롭게 교환하는 행위를 그들이 해방됐다는 지표로 삼는다. 이들은 여성의 달리 물질적 필요를 충족할 방법이 없어서 성매매를 할 때 언제든지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의 공간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이 성애자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이 그들을 원해야만 여성으로서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성차별주의 적 전제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성애자 여성들이 이런 믿음을 버리고자 한다면 동성

간의 성적 접촉과자위, 독신 생활또한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만큼 생기 넘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한때는 폐미니즘이 이끌어 낸 변화를 지지했던 다수의 나이든 여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더 젊은 여성을 찾아 떠나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품게 하는 남성들과 어떤 식이든 성적 접촉을 가지려면 성차별주의적으로 주조된 여성 성과 성적 매력의 통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걸 보면 여성들이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든 아니든, 우리가 성적인 가치와 힘을 지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 성적으로 해방된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급진주의 폐미니즘 사상가들의 판단은 옳았다.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 성적 감정과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줄 폐미니즘이론이다 시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폐미니즘 담론이 지난 한계에도 불구하고, 폐미니즘 정치는 여전히 이론과 실천의 결과로서 상호 간 행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유일한 사회 운동이다. 우리는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성적 쾌락 속에서 삶을 긍정하는 정신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토대로 하는 존재의 성애학을 필요로 한다. 성적인 유대는 우리에게 고립과 고독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들어 오라고 손짓한다. 성적 갈망의 긍정적 표현들이 우리를 이어주는 세상에서라면, 우리는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성적 실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적 실천에는 난교든 금욕주의든, 어떤 특정한 성적 정체성이나 취향을 가졌든, 상대의 성별이나 인종, 계급, 심지어 성적 취향이 무엇이건 간에 에로틱한 끌림이 불꽃처럼 튀는 특정한 누군가와 관계 할 때만 불붙는 미지의 욕망을 탐색해 볼 수도 있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급진주의 폐미니즘 담론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시 한 번 시작되게끔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 16 장: 완전한 행복 — 레즈비언이즘과 폐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과 성 해방 운동 중 무엇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가끔 있다. 어떤 활동가들에게는 두 운동이 서로 뒤섞여 동시에 존재했다. 적어도 최초로 현대 폐미니즘 운동의 선봉에 섰던 수많은 양성애자와 레즈비언 여성들은 확실히 그랬다. 이들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폐미니즘 운동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다. 레즈비언은 대부분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으며, 보수적이었고, 급진적인 행동을 취할 생각도 없었다. 여성 해방 운동의 최선봉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여성들은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의 고정된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미 좌파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폐미니즘 운동으로 흘러들었다. 그들이 젠더와 욕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는 여성 해방의 가치를 듣고 있거나 다름없었다.

단지 레즈비언이라고 폐미니스트가 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변모 할 때는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착취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저항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에 사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레즈비언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여성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각성과 선택을 경험한 여성들은 대개 좌파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모인 급진적 성향의 여성들은 사회주의자 모임과 민권 운동, 전투적 흑인 운동 같은 급진적인 운동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 뒤치다꺼리를 떠맡았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정의를 주창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폐미니즘 운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선구적이고 용기 있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레즈비언들이었다.

나는 첫 성경험을 하기도 전에 폐미니즘을 접했다. 그때 나는 십대였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종교 적극 본주의가 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미국 남부의 좁고 편협한 세계에서는 누가 게이인지 알고 있지 냐며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이들도 많았다. 계급 권력을 지닌 남성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남성들의 동성애는 여성들의 동성애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 내가 살았던 작고 격리된 흑인 공동체에서는 레즈비언도 대개 이성애자 남성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은밀한 작은 술집이나 파티장 같은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냈다. 레즈비언이라고 비난 받았던 여성들 가운데 한 분이 내 멘토가 되어주었다. 전문직 여성이나 독서가였고 사색가였으며 파티 걸이었던 그녀는 내가 존경하던 여성 이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웃기는 여자"라며 우리의 유대 관계에 대해 불평을 하자 엄마는 "사람들은 타고난 모습대로 살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우리 집 맞은 편에 살았던 게이 남자가 십대 소년들에게 잔인하게 조롱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엄마는 그 남자가 책임감 있고 다정한 사람이 고그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해 싸우셨다.

나는페미니즘이라는용어를알기훨씬전부터게이들의권리를옹호했다. 우리가족은내가결혼을하지않을까봐걱정을하기전부터내가레즈비언이아닐까걱정했다. 사실나는어디든내피가끓는곳으로가리라는걸예감했기에내멋대로진정한괴짜가되어가는중이었다. 첫책『나는여자가아닌가요 — 흑인여성과페미니즘』을썼을때나는이미이성애자와양성애자, 그리고동성애자임을밝힌여성들과함께페미니즘운동에참여하고있었다. 그시절우리는젊었다. 그리고당시우리중어떤이들은우리의정치성과우리의몸을여성들과공유함으로써진심으로이운동에헌신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라는압박감을받았다. 그무렵모두가깨달은교훈이있는데, 도덕관습을거스르는성행위를한다고해서그사람이진보적인사람이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이었다. 첫책이나왔을때흑인레즈비언여성들에게격한항의를받아어리둥절했었다. 그들은내책에레즈비언에대한언급이없다는이유로나를동성애혐오자라고비난했다. 그주제에대해다루지않았다는것이내가동성애를혐오한다는증거인건아니었다. 나는그책에서아예섹슈얼리티문제를다루지않았다. 아직준비가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주제를충분히알지도못했다. 좀더알았다면책에썼을테고그랬다면아무도내게동성애혐오자라는딱지를붙일수없었을것이다.

소녀시절, 내가알던강인하고다정했던레즈비언들에게배운지금도유효한교훈은, 여성이자신의안정과행복을위해남성에게기댈필요가없다는것이었다. 성적쾌락조차도말이다. 이교훈은여성들에게새로운가능성의세계를열어주었다. 그깨달음은선택과대안을제시했다. 지금껏남자와함께살아오면서성적으로나감정적으로만족스러웠던아니든, 남자없이도행복할수있다는상상을해본적이없기때문에, 성차별주의적남성과의관계에안주한여성들이얼마나많을지우리는결코알수없을것이다. 어떤여성이자기존재를정당화하고이를입증하기위해자신이아닌다른무언가를필요로한다면, 그녀는자기를확인하기위해자신의힘을누군가에게양도하는셈이나다름없다. 레즈비언여성들은내게어렸을때부터지금까지스스로자기인식을할수있는자유를요구해야한다고일깨워주었다.

이것이야말로급진주의레즈비언사상가들이페미니즘운동에불어넣어준특별한지혜다. 남성의허락이없어도, 남성에게성적으로인정받지않아도여성은충만한삶을살수있음을머리로는이해한예외적인이성애자여성들이있었다해도그들은이러한믿음을실천에옮긴경험을페미니즘운동에더해주지는못했다. 페미니즘운동초기단계에우리는‘여성으로정체화한여성 woman-identified woman’이나‘남성으로정체화한여성 man-identified woman’이라는표현을썼는데, 레즈비언을택하지않았지만남성으로부터실존을인정받는일을거부하는활동가들이있었기에, 이들을여성으로정체화한여성으로구분했다. 남성으로정체화한여성들은로맨틱한이성애에빠지면순식간에페미니즘원칙을내팽개치는이들을지칭했다. 그들은또한여성보다남성의편에섰으며, 늘남성들의시각으로상황을바라보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처음으로여성학을가르칠무렵, 급진주의레즈비언학생들이내게왜아직도남자에게‘빠져’있느냐고궁금해했다. 그러던어느날수업이끝나고주차장에서그녀들과한바탕설전이벌어졌다. 그런데그때자신의레즈비언정체성을명확하게알고있으면서도섹스산업에종사하며수많은남성과관계를해야했던, 또래들보다좀더나이많은흑인레즈비언학생이이런말로페미니스트로서의내명예를옹호해주었다. “선생님은남자와섹스를하지만여성정체화한여자야. 그건선생님의권리야. 하지만선생님은여전히우리와대의를함께하고있어.”

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운동에서떨어져나가던 1980 년대중반페미니스트모임에서는페미니즘정치를굳건하게지켜내는문제에대한논의가핵심주제였다. 여성들이점점더많은권리를획득해갔지만, 페미니즘운동의급진적인부분을담당했던선구적인레즈비언사상가들이나활동가들의존재와이들의노력은잊혀갔다. 페미니즘운동에서가장급진적이고용감했던레즈비언들은대부분노동자계급출신이었다. 그러니그들에겐학계에서활동하려할때요구되는학위가없었다. 페미니즘이학문으로정립되면서이성애중심주의적인위계가다시강화됐는데, 이위계질서내에서는설령학교밖에서여성운동에시간을쏟지않더라도화려한학벌을갖춘이성애자여성들이더존경받고더대접받고는했다.

그러나다름의문제, 인종과계급을포함해페미니즘이론과실천을확장하는문제에대해가장적극적으로자신들의관점을수정해온사람들은바로선구적인레즈비언사상가들이었다. 많은경우그들은그들이주류의기준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착취나억압혹은그두가지를모두당하는것이무엇인지경험을통해알고있었기때문이다. 선구적인레즈비언활동가들은이성애자동료들보다훨씬더적극적으로백인우월주의에이의를제기했다. 게다가모든남성들과연대를강화하고자한것도그녀들이었다. 대다수의이성애자여성들은열성적인페미니스트건아니건자신과남성의관계에더신경썼다.

여성으로서우리가누구를사랑할지, 누구와몸을나누고함께살지선택할자유는동성애자인권과여성의권리를위해투쟁했던급진주의레즈비언들덕분에크게향상됐다. 페미니즘운동에서예나지금이나레즈비언들은모든유색인종여성들이성적취향이나정체성에상관없이인종차별주의에맞서고저항해야했던것처럼동성

애혐오에 맞서고 대항해야 했다는 성애혐오를 영속화하면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 주장하는 여성들은 백인 우월주의 적사고를 고수하면서 자매애를 원하는 여성들만큼 착각에 빠져 있으며 위선적이다.

주류 대중 매체는 페미니즘 운동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항상 이성애자 여성을 선택했다. 이 성애자로 보일 수록 더 좋아했다. 그 여성의 매력적 일수록, 그녀의 이미지가 남성들의 시선을 끌 수록 더 좋아했다. 여성 정체화 한 여성은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좀처럼 남성의 인정으로 삶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이에 가부장제가 우리를 위협적으로 느낀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간에 그들의 시선과 욕망을 가부장제, 즉 성차별주의적 남성들에게서 거두어버린 페미니스트 여성보다는 가부장제 사고 방식을 지닌 레즈비언이 덜 위협적이다.

오늘날에는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들처럼 대다수의 레즈비언들도 급진주의 정치에 별로 흥미가 없다.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했던 레즈비언 사상가들 중에는, 레즈비언이 이성애자 여성 만큼 성차별주의자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힘들어 하던 사람도 있었다. 페미니즘은 이론이고 레즈비언이즘은 그 실천이라는 유토피아적인 발상은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문화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레즈비언들도 이성애자 여성들처럼 지배와 복종이라는 패러다임에 의지해 그들의 파트너십을 설정한다는 현실을 이기지 못해 거듭 봉괴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종속될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상호만족을 이루는 유대 관계를 맺기란 이성애자들만 아니라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어려웠다. 레즈비언의 동반자 관계에서 가정 폭력이 벌어 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동성 간의 결합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동시에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이 학파학적 인성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훨씬 더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동성애자들이 성애자들 성적으로 보수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지배와 복종 관계로 합의된 성 관계는 옳지 않으며 이는 자유라는 페미니즘의 이상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는 자신이 가장 큰 성적 만족감을 얻는 성생활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무조건 심판하려드는 그들의 태도야 말로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여자들끼리 어떻게 섹스를 할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여자에게 성적 욕망을 품어 본 적이 없는, 그러나 다른 여자들이 레즈비언이 되든 양성애자가 되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절대 끌리지 않을 성 행위를 하는 레즈비언이나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지 받는다. 레즈비언의 학파학적 행위를 비난하는 보수적인 페미니스트들의 태도의 이면에는 동성애 혐오가 숨어 있다. 레즈비언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성애자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따라야만 할 것처럼 구는 여성들은 결국 동성애 혐오를 영속화 할 것이다. 확실히 학파학적 성 행위는 레즈비언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에 비해, 더 많은 이성애자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페미니스트들의 비난도 그 만큼 덜 가혹하고 덜 집요해졌다.

동성애 혐오에 대한 싸움은 언제나 페미니즘 운동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애자 여성들이 레즈비언을 계속 경멸하며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한, 여성들이 자매애를 키워나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구적 인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급진적 레즈비언들의 투쟁이 없었으면,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은 이성애 중심주의의 경계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나취 향 혹은 그 모두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공간을 만들겠다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유 산을 계속해서 기리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 17 장: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 페미니즘의 심장

사랑을 알고 싶은 여성과 남성이라면 페미니즘부터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 페미니즘 적사고와 실천 없이는 사랑의 결속을 만들어 낼 토대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는 이성애 관계에 깊이 실망한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 해방을 외쳤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가 결혼을 하자 마자 멋진 왕자님에서 가부장제적인 영주로 변모하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성애자 여성들은 그들의 분노와 회환을 가슴에 담은 채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남만적 연인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낀 레즈비언의 고통에 동병상련을 느꼈다. 그 결과 운동 초기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 할 때면 남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여성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식화모임에서들은바에의하면사랑을갈망하는마음은그가남성이든여성이든우리를가부장제적인연인과사랑에빠지게하고, 그연인은우리의사랑을이용해우리를정복하고종속하려하기에유혹적인덫과다름없다. 남성과의성경험을갖기전에페미니즘운동에참여했던나는여성페미니스트들의남성을향한강렬한분노와증오심에어안이벙벙했었다. 하지만그분노의근원은곧이해되었다. 나만해도가족들위에군림하는아버지에대한직접적인반발로십대시절페미니즘사고를받아들였으니말이다. 군인출신에운동선수였으며교회의집사였고가장에바람둥이였던아버지는전형적인가부장이셨다. 나는엄마의고통을목격했고결국아버지에게반기를들었다. 아빠가얼마나엄마를모욕하든얼마나폭력적으로대하든엄마는젠더불평등으로인한이런일들에결코짜증을내거나분노하지않았다.

처음으로의식화모임에참여했을때거기서엄마뻘여성들이고통과서러움, 분노를토로하며사랑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하는모습을보았고그들의마음이이해됐다. 그러나한편으로는여전히좋은남자를만나사랑을해보고싶었다. 나만은꼭그런사랑을하리라믿었다. 그러면서도나를사랑하는남자라면그도페미니즘정치에헌신해야한다고굳게믿었다. 1970년대초, 남성과함께하고싶었던여성들은그남성을페미니스트로변모시켜야하는도전에직면했다. 그들이페미니스트가되지않는다면행복은오래갈리만무하다는사실을우리는잘알았다.

대부분의사람들이아는것처럼가부장제문화에서의낭만적사랑은사람을바보로만들고힘과통제력을앗아간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은사랑에대한이런통념이가부장제적인남성과여성의이익에부합한다는사실을깨우쳐야한다고했다. 이런통념은사랑이라는이름으로뭐든할수있다는인식을뒷받침했다. 사람을때리고, 행동을제약하고, 심지어는목숨을앗아가고도“열정때문에저지른범죄”라며“그녀를너무나사랑했기에죽일수밖에없었다”고항변을한다. 가부장제문화에서사랑은소유의개념그리고한쪽은사랑을주기만하고다른쪽은받기만해도된다는지배와복종의패러다임과연결되어있다. 가부장제에서이성애중심주의적결합은, 돌봄의정서를가진젠더인여성이남성에게사랑을주어야하고권력과공격성을지닌남성은여성을부양하고보호해준다는기본전제를토대로한다. 그러나이성애자가정에서수많은경우에남성을돌봄에보답하지않았다. 대신자신이가진권력을부당하게이용해가족을통제하고강압하는폭군이됐다. 페미니즘운동초창기에이성애자여성들은더이상고통받지않으려고사랑의유대를끊기위해서운동에뛰어들었다.

페미니스트들이여성들에게아이들만바라보고살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는점에도주목해야한다. 아이들은여성들의완전한자아실현을가로막기위해사랑이놓은또다른덫에불과했다. 당시페미니즘이우리에게경고하기를, 남편대신자식에게애정을쏟는어머니란언제든지자식에게잔인하고부당한벌을내리는전제적이고부조리한괴물이라고했다. 젊어서페미니즘정치를찾은사람들은대개지배적인어머니에반기를든경우였다. 우리는그렇게살고싶지않았다. 자칫하면답습할지도모르는그런여성들과다른삶을살고싶었다. 우리가다르게살수있는확실한방법중하나는아예아이를가지지않는것이었다.

사랑에대한초기페미니즘운동의비판은꽤단순했다. 그때는사랑에대한가부장제의그릇된관념에구체적으로저항하기보다그저사랑이문제라는식으로인식했다. 우리는사랑을처분해버리고그빈자리를권력과권리에대한관심으로채우려고했다. 그때는아무도우리에게마음이황폐해져결국우리가페미니즘반란이라는명분으로거부했던가부장제적남성이나부치들처럼감정적으로폐쇄적인사람이될수도있다고경고하지않았다. 그리고실제로이런일이일어났다. 페미니스트들은사랑에대해재고하며그중요성과가치를강조해야했지만오히려사랑에대한논의를중단해버렸다. 사랑을원했던여성들, 특히남성과의사랑을원한여성들은사랑을구할방법을찾아다른곳으로눈을돌렸다. 이런여성들중상당수가페미니즘이사랑의중요성도, 가족관계도, 공동체에서타인과더불어사는삶도거부한다고느꼈기에페미니즘정치를떠나갔다.

선구적인페미니즘사상가마저여성들에게사랑에대해뭐라해야할지몰라우왕좌왕했다. 『페미니즘—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나는페미니즘운동리더들이운동에사랑의정신을불어넣어야한다고썼다. “페미니즘운동의지도자들은반드시사랑과공감을보여줄능력이있어야하며, 행동으로그런사랑을드러낼수있어야하며, 대화를성숙하게끌어나갈수있어야한다.”그당시나는‘지배의형태를바꾸는사랑이라는행위’에대한믿음을전파했지만정작모두에게사랑의해방적비전을제시할페미니즘이론을만드는게얼마나중요한지심도있는글은쓰지못했다.

이제와돌이켜보면, 당시우리는사랑에관한, 특히이성애에대한긍정적인페미니즘담론을만들어내지못했기때문에, 가부장제대중매체가페미니즘운동이사랑보다는증오를발판으로하는주장이라고떠들수있는여지를주고말았다. 남성과유대를맺고싶었던수많은여성들은그런유대를맺지도못했고그렇다고페미니즘운동에헌신할수도없었다. 실제로우리는여성도남성도페미니즘을통해사랑을알수있다는생각을널리퍼뜨렸어야했다. 이제는그사실을안다.

선구적인 페미니즘은 현명함과 사랑이 넘치는 정치다. 페미니즘 정치의 정신은 지배를 종식하기 위한 협신이다. 사랑은 결코 지배와 강압에 기반한 관계에 뿌리내릴 수 없다. 대부분 제적 사랑의 개념을 매섭게 비판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에게 든 남성에게 든 우리가 사랑을 찾는 여정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비판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페미니즘 적비전이 필요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삶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랑, 즉 페미니즘 적실천에 뿌리를 둔 사랑을 했지만 사랑에 대한 좀 더 보편적인 페미니즘 담론을,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사랑에 적대적이었던 분파들에 집중된 관심을 분산 시킬 만한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비전의 맥박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진실과 공명한다. 즉, 지배가 있는 곳에 사랑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페미니즘 사고와 실천은 동반자 관계와 육아를 통한 상호 성장과 자아 실현의 가치를 강조한다. 누구나 욕구를 존중받고, 누구나 권리를 누리고, 누구든 예속이나 학대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관계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대부분 제가 관계의 구조를 지키기 위해 고수하는 모든 것과 반대된다. 우리 여성들은 대부분 아버지나 남자 형제, 또는 이성애자 여성의 경우 연애 관계까지 사생활에서 접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의 지배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페미니즘 사고와 실천을 받아들일 경우 두 사람의 감정적 행복은 더 깊어질 것이다. 진정한 페미니즘 정치는 언제나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로,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이끈다. 상호 동반자 관계야 말로 사랑의 토대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실천은 상호 성의 토양을 만드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사회 운동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인지와 포용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에, 사랑이 인정과 애정, 책임감, 헌신, 그리고 지식을 모두 품어야 한다는 사실에 수긍한다면 정의 없이 사랑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 시킬 힘을 주고,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준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정치를 택하는 것은, 곧 사랑을 택하는 것이다.

## 18 장: 페미니즘 적영성

페미니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영적인 실천을 도모하는 저항 운동이다. 나는 페미니즘이론과 그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아 실현에는 자기애와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인지했지만, 그 전부터 그 와동일한 메시지를 긍정하는 영적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남성 중심적인 종교의 성차별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영성의 실천에서 위안과 안식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냈다. 서구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여성들은 남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성의 지배 없이도 신에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수도원 생활 방식에 의존했다.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과 신성한 명석함을 두루 갖춘 신비주의자 노리치의 줄리 앤 (Julian of Norwich)은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태동하기도 훨씬 전에 이련글을 남겼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참된 어머니로, 우리는 그 안에서 끝없이 태어나고 그 없이는 결코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구세주는 언제나 오직 남성이라는 인식에 감히 대항한 노리치의 줄리 앤은, 신성한 여성 성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에 오르며, 대부분 제적 종교에 속박된 여성 이해방 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페미니즘 운동은 초기부터 대부분 제적 종교를 비판해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신앙심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다시 말해 페미니즘은 서구의 형이상학적이 원론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 범주로, 이를 테면 세상은 열등한 것과 우수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뉜다는 가설) 이 억압과 성차별주의, 인종 차별주의 등 온갖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 체계의 기본 개념을 형성해 간접적을 밝혀냈다. 승배의 방식을 바꾸려면 영성의 비전을 다시 세워야 했다. 페미니즘이 가부장제 종교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 갈즈음 문화 전반에서 뉴에이지 영성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출현했다. 뉴에이지 영성 단체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서구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해답을 구하고 다른 영적 전통을 구하기 위해 동양으로 눈을 돌렸다. 타락과 구원의 개념에 뿌리를 둔 가부장제 영성을 밀어낸 자리에 삼라만상의 영성이 들어섰다. 힌두교와 불교, 부uddha교 등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여자들은 여신 중심의 영성으로 회귀하게 하는 여성적 신성의 이미지를 찾아냈다.

페미니즘 운동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페미니즘 운동이 정치에만 고착해야 하며 종교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활동가들의 주장으로 인해 충돌이 빚어졌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치 단체에서 활동하다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든 여성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다. 그들은 신성한 여성 성의 비전으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비정치적이며 감상적이라고 보았다. 운동 내부에서의 이러한 분열은 가부장제 종교에 대한 도전과 해방된 영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눈여겨보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내 종식되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그리스도교인으로 여긴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성차별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를 용인하는 그리스도교교리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익혀나가는 젠더 역할에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종교적 믿음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문화를 폐미니즘적으로 절대 전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 중심적 그리스도교 영성의 각성은 그 자체로 폐미니즘 운동과 연결됐다. 매슈 폭스는 『원복 Original Blessing』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가부장제 종교들과 종교의 가부장제 적폐를 다임은 최고 35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지배했다. 창조 중심적 전통은 폐미니즘적이다. 그러한 영성에서는 지혜와 에로스 가지식이나 금욕보다 더 중요하다.” 자연환경/생태주의에 관심이 있는 폐미니스트들과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폐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원론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 운동은 우주가 더 충만하게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분이고 자연은 인간이 자기 인식과 잠재된 변화의 힘을 인식하는 기반이다. 해방 운동은 조화와 균형, 정의, 찬양에 대한 우주적 감각을 더 충만하게 발전시킨다. 이는 진정한 영적 해방을 위해서는 우주를 향한 찬양과 치유의 의식이 필요해서인데, 이는 다시 개인의 변화와 해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해방 신학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집단을 해방하는 것이 신의 의지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신앙 행위라고 본다. 가부장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야 말로 신의 뜻이다.

근본주의 가부장제 종교는 예나 지금이나 폐미니즘 사고와 실천의 확산을 막는 장벽이다. 사실, 폐미니즘 사상가, 특히 여성의 임신 선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범행을 묵인한 우익 종교 근본주의자들보다 폐미니스트들을 악마화하는 집단도 없다. 처음에 폐미니즘이 그리스도교를 비판하자 수많은 여성 운동에서 멀어졌다. 이후 그리스도교인 폐미니스트들이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창조 중심적인 새로운 비판과 해석을 내놓자 여성들은 폐미니즘 정치와 화해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적실천을 계속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활동가들은 다수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포용해 폐미니즘과 그리스도교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 시킬 만한 폐미니즘 운동을 완전하게 조직하지 못했다. 유대교나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폐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직적인 사부장제 종교가 언제까지도 폐미니즘의 성과를 깎아내릴 것이다.

현대 폐미니즘 운동은 초기에는 영적 세계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시민권과 세속적인 성과에 더 집중했다. 주류 대중 매체는 폐미니즘이 그리스도교를 비판한다는 사실만 조명할 뿐 다양하여서 폐미니스트 집단이 거둔 영적인 깨우침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폐미니즘이 반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폐미니즘은 가부장제 종교 사상이 변화하도록 이끌어 더 많은 여성들이 신 성과의 연결을 찾아내 영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폐미니즘적 영성 실천은 대개 원가족이나 여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부장제의 공격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치유 과정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질문에 확인을 얻은 것도 폐미니즘 치유 법의 맥락에서였다. 이러한 영적인 탐구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경험이라 폐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영성, 즉 영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 시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폐미니즘 운동은 폐미니즘적 영성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더 나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안적 영적 세계를 선택한 덕분에 수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 종교에 맞서고 저항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도화된 가부장제 교회나 사찰은 폐미니즘의 개입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회는 지금 가지 젠더 평등을 위해 해오던 노력을 내팽개치기 시작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발흥이 진보적 영성을 위협한다. 근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게끔 부추길 뿐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고히 한다. 이에 임신 선택권에 대한 탄압이 뒤따른다. 이와 동시에 종교적 근본주의는 여성과 남성의 성에 수많은 형태의 성적 강제를 용인하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억압적인 통념을 불어 넣는다. 반드시, 폐미니즘 활동가들은 조직화된 종교를 주시하고 비판과 저항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폐미니즘을 긍정하는 경이로운 영적 전통들이 현재 이 세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실천에 대해 알기 회피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가부장제 종교가 영적인 편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제 종교는 대중 매체 특히 텔레비전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한다. 가부장제 종교가 유일한 영적 안식처라는 인식에 대항하려면 대안 영성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폐미니즘적 영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념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지를 제공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드러내고, 신성한 여성성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긍정하거나 재긍정하는 법을 찾을 수 있었다. 모든 형태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영적 탐사와 동일 시함으로써 우리

는 정의와 해방을 위한 투쟁과 영적인 실천을 하나로 이어주는 영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폐미니즘의 비전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영적 삶의 토대가 된다.

## 19 장: 폐미니즘의 미래

진정으로 선구적이려면 우리의 상상은 구체적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현실을 넘어 설 미래를 그릴 줄도 알아야 한다. 현대 폐미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형태와 방향을 바꾸어 가는 방식에 있다. 진부한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고수하는 사회 운동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선구적인 폐미니즘의 뿌리는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 해방 운동이 갓 시작되었을 당시, 급진적/혁명적 정치 운동을 꿈꾼 선구적인 폐미니스트 사상가들이 출현했다. 그들은 운동을 이끌며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시스템의 힘을 약화하고 이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기존 체제 하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개혁주의 적싸움도 지속했다. 그들은 지배의 문화에 짜든 이 세상을 공동체 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가방탕이 된 참여적 경제의 세상으로, 인종과 젠더에 따른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상호 성과 상호 의존에 대한 인정이 지배적인 정서를 이루는 세상으로, 지구의 생명을 지키며 모든 사람이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지구적인 생태주의 비전이 실현된 세상으로 바꾸는 꿈을 꾸었다.

급진적/혁명적 폐미니즘의 비전은 운동이 발전하면서 더 명확해지면서도 더 복합적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이 비전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체제 내 변화를 이끌어 낼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개혁주의 폐미니스트들의 절대론으로 인해 종종 불투명해졌다. 어떤 개혁주의 폐미니즘 활동가들은 젠더에 근거한 경제적 불평등을 뜯어고쳐 특권 계급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경찰 압수를 노력했지만, 어떤 이들은 운동의 역량을 개혁에 집중하면 여성의 삶에 더 의미 있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간단히 믿어버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폐미니즘 투쟁의 급진성을 포기하면서 폐미니즘 운동은 주류 인자 본주의 가부장제의 공세에 보다 취약해지고 말았다.

계급 권력 획득이나 한 층 커진 계급 이동의 가능성에 현혹된 개혁주의 활동가들이 기존의 사회 체제 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체제를 해체하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성들은 더 줄어들었다. 한쪽에서는 캐럴 길리건 같은 폐미니즘 사상가들이 질리지도 않고 여성성이 더 정하고 더 윤리적이라고 말했지만,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힘없는 다른 여성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무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경제 성이라 생각하는 같은 민족이나 인종 집단에 보이는 보살핌의 윤리는, 그들이 공감할 수 없고 동질성이거나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특권층 여성들은 (예외도 있었지만 대부분 백인이었다) 노동자 계급과 빈곤층 여성들의 종속이 지속되도록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동참했다.

선구적인 폐미니즘은 모든 여성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이 각자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려면 운동은 젠더 평등의 제를 뛰어넘어, 모든 여성들, 특히 빈곤층 여성들을 껴안을 수 있는 문맹퇴치 운동 같은 기본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 세상에는 폐미니즘 학교도, 폐미니즘 대학도 없다. 그리고 이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었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쌓게 하는 차별 철폐 조처의 주요 수혜자들인 교육 받은 백인 여성들은, 기존 체제의 단물을 모두 빼먹었기에 폐미니즘 원리를 설립 이념으로 삼는 교육 기관의 창설에는 의욕이 없었다. 이런 교육 기관이 월급을 많이 줄리 없을 터였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부유한 폐미니즘 활동가들 조차 사재를 털어서라도 기본적인 기술 조차 배우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선구적인 폐미니즘 사상가들은 광범위한 폐미니즘 운동, 그러니까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모든 계급을 가로지르는 운동의 필요성을 통감했지만, 정작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선구적인 폐미니즘이론 조차 정립하지 못했다. 요즘 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폐미니즘이론은 대부분 자기들 만아는 은어 같은 어려운 학술 용어로 쓰여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폐미니즘에 대해 기초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초등 학생도 이해 할 만한 폐미니즘 입문서도, 다채롭고 풍부한 자료로 구성된 폐미니즘 책도 구할 수 없다. 그런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폐미니즘 운동을 재건하고 싶다면 이런 책 부터 만들어야 한다.

폐미니즘 옹호자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기존 방송사와 정 코너를 잡아서 폐미니즘을 소개할 만큼 자금을 만들지 못했다. 텔레비전이나 디오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폐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어디서도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폐미니즘에 대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사람들이 여성 젠

더와관련된것이라면무엇이든, 그것이설령페미니즘적관점을전혀담고있지않더라도페미니즘을기반으로한것이라고지레짐작한다는것이다. 젠더문제를부각하는라디오프로그램과몇몇텔레비전프로그램도있지만그정도로페미니즘을집중조명한다고는할수없다. 역설적이게도현대페미니즘이거둔성과중하나가누구나젠더문제나여성문제를터놓고말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했다는점이긴하나다시한번말하지만그게꼭페미니즘적관점을바탕으로하는것은아니다예를들어, 페미니즘운동은우리사회가여성과아동에대한남성의폭력문제를직시할수있는문화혁명을일으켰다.

대중매체가가정폭력장면을연이어보여주고그에관한논의또한도처에서진행중이지만, 대중은남성이저지르는이러한폭력의사슬을끊어내기위해남성중심주의를끝장내고가부장제를종식해야한다고거의생각하지않는다. 이나라대다수시민들은여전히남성중심주의와가정에서일어나는남성폭력사이의연관성을잘모른다. 그리고계급을막론하고젊은남성이가족, 친구, 동급생등을잔인하게살해하는사건에이사회가보이는반응을보면, 그관계를잘모른다는사실이더욱분명해진다. 대중매체는왜이런폭력이발생하는지를가부장제적사고와연결짓지않은채그저묻기만한다.

비판의식을함양하기위해대중적인페미니즘교육이필요하다. 안타깝게도지금까지는계급엘리트주의가페미니즘적사고의방향을짰다. 대부분의페미니즘사상가/이론가는엘리트들로둘러싸인대학에서연구할뿐이다. 우리는대부분어린이책을쓰지도, 초등학교에서가르치지도, 공교육교육과정에건설적인영향을미치게끔적극적인로비활동을하지도않는다. 나는누구나쉽게납득하는페미니즘사상을만드는페미니즘운동의일부가되고싶었기에어린이책을쓰기시작했었다. 읽거나쓸줄모르는모든세대의사람들한명, 한명에게메시지를전하는데에는오디오북도좋다.

페미니즘의메시지를널리전하기위해가호호문을두드리는집단적인노력은, 페미니즘정치는급진적일수밖에없다는기본전제와더불어새로운모습으로새로이시작하는운동에필수불가결하다. 급진적인면은대개음지로밀려나게마련이므로, 페미니즘의메시지를퍼뜨리고싶다면페미니즘을양지로끌어올리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페미니즘은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지배와억압을끝내려는운동이며젠더차별을근절하고평등한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는투쟁이므로근본적으로급진적인운동이다.

페미니즘활동가들이모든방면에서나타나는성차별주의를몰아내기위한노력을그만두고오로지개혁에만집중하자페미니즘운동에내재된급진성을둘러싸고혼란이빚어졌다. 수많은‘페미니즘들’이있을수있다는주장은, ‘파워페미니스트’라는용어를최초로사용한집단중에서도지위와특권계급의권력을추구한여성들의보수적이고자유주의적인정치적이해에부합한것이었다. 이들은페미니스트가입신중단에반대할수있다고주장한최초의집단이기도했다. 이는또하나의그릇된주장이다. 여성의자신의몸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는것이야말로페미니즘의기본원칙이다. 여성개인이임신중단을하느냐마느냐는순전히선택의문제다. 임신중단을하지않는다고해서반대페미니스트가되는것이아니다. 여성에게선택할권리가있다는것이야말로페미니즘의원칙이다.

기생적인계급관계와부와권력을향한탐욕으로여성들은빈민, 노동자계급여성들의이해를배신하기에이르렀다. 한때페미니즘사상과함께했던여성들이이제공공복지에반하는정책을지지한다. 그들은자신들의입장에아무런모순도느끼지않는다. 이들은단순히각자생각하는페미니즘에나름의‘브랜드’를달았을뿐이다. 페미니즘을라이프스타일이나상품으로여기게되면저절로페미니즘정치의중요성은희석된다. 오늘날수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을제외한시민권만을원한다. 이들은공적인분야에서평등을갈망하는순간조차사적인분야에서는가부장제체제가온전하게남아있기를원한다. 그러나선구적인페미니즘사상가들은일찍이운동초기부터가부장제와결탁하거나하다못해페미니즘운동의일부주장에대한가부장제의지지(가령, 여성에게일을하라는요구)를받아들인다면결과적으로여성의입장이취약해질것이라보았다. 우리는삶을지배하는체제가근본적으로바뀌지않은상태에서획득한권리는다시쉽게빼앗길수있다는점을잘알게되었다. 그리고우리는임신선택권문제에서, 특히임신중단문제에서우려했던일이벌어지는현실을이미알고있다. 가부장제의틀안에서시민권을쟁취했다한들, 여성들로하여금우리가실제보다더잘지내고있으며지배구조가변했다고생각하게한다면이는위험한일이다. 실제로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에등을돌리면서이러한구조는다시공고해진다.

극단적인반페미니즘역풍도페미니즘운동을약화시켰다. 이역풍의주역은페미니즘을맹비난하며결국운동을훼손한기회주의적이고보수적인여성들이었다. 가령, 최근에출간된대니엘크리텐든<sup>15</sup>은『우리어머니들이말해주지않은것들 — 왜행복은현대여성을피해가는가』는, 여성은항상가정에서살림을하며건강한아이를낳아기르는어머니가되어야하며, 남녀의사고방식이근본적으로다름을인정해야하며, 무엇보다도여성

<sup>15</sup> Danielle Crittenden. 캐나다출신의언론인이자저술가.·역자주

들에게 페미니즘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현대 여성의 직면한 불만은 모두 페미니즘 운동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절대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주의, 인종 차별주의, 계급 차별주의에 대해 서언 급하지 않는다. 반 페미니즘 책들이 쉬운 말로 쓰여 광범한 독자에게 다가가는데 반해, 그들의 메시지에 맞설 만큼 대중적인 페미니즘이론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 특히 이제 중년에 들어선 서른다섯에서 예순다섯 사이의 우리 같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페미니즘이 그들의 삶에 미친 건설적인 영향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된다.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대중의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가부장제 적사고와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페미니즘 의사고와 실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성의 삶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 사실이긴 하다.

선구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늘 남성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지만 남성들이 성차별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위축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젠더 전쟁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남성을 투쟁의 동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그러니까 남성이 페미니즘 정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본다면 결국 국여성이 패배하는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이들은, 대중이 페미니즘을 의심하고 무시하도록 엉뚱하게 거둔 셈이 되었다.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들 중에서는 남자들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페미니즘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들도 있었다. 하루빨리 남성들이 페미니즘의 가치를 들고 가부장제에 맞서야 한다. 이지구에서 안전하고 영속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남성들이 페미니스트로 전향해야 한다.

페미니즘 운동은 연령과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차별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야 진보한다. 이런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 꼭 어떤 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선 그 곳에서 페미니즘을 위한 행동을 하면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가르치며 페미니즘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과 남성 개개인에게 변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페미니즘 정치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페미니즘 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 만큼은 다양해야 한다.

페미니즘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천차만별이므로 각자의 삶에 곧장 말을 건네는 페미니즘이론이 필요하다. 흑인 여성 페미니즘 사상가로서 나는 페미니즘 투쟁이 흑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모든 흑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관점과 전략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흑인의 삶에서의 젠더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구적인 급진적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제국주의-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젠더와 인종, 계급의 관점에서 각자의 삶을 용감하게 되돌아보라고 격려한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젠더가 어떤 이의 상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그릇된 전제를 고수했다. 이러한 아집을 깨뜨리는 일도 페미니즘 정치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덕분에 여성들은 인종과 계급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여성 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과정을 지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페미니즘 투쟁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페미니즘 운동 만큼 가부장제가 여성과 남성의 행복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기에 반 페미니즘 억풍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페미니즘 운동이 성차별주의와 남성 중심주의의 영구화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페미니즘 운동은 실패했을 것이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가부장제 대중매체는 페미니즘 교실에서 남성은 환영 받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지만, 실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이런 의미심장한 변화가 가부장제에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한다. 앞서 강조했다시피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에게만 집중했다면 가부장제적 현실은 조금도 흡집이나지 않았을 것이며,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페미니즘을 가혹하게 공격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가부장제적 대중매체와 성차별주의 지도자들은 거듭해서 페미니즘은 죽었다고, 페미니즘은 더 이상 아무의 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로 눈을 돌리면 사방에서 모든 연령의 여성과 남성들이 계속해서 젠더 평등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해방해 줄 새로운 젠더 역할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페미니즘을 찾는다. 선구적인 페미니즘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준다. 페미니즘 사고는 상호 관계와 상호 의존의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불평등이 초래한 결과를 바꾸고 동시에 지배를 종식할 방법을 제안한다. 상호성이 일상인 세계에서는 때때로 모두가 평등하지 않더라도 그 불평등의 결과가 반드시 복종과 식민지화, 비인간화는 아닐 것이다.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비록 대중 기반의 운동 역량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 우리 삶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선구적인 페미니즘이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

리의현재를고심하게끔끊임없이생산되고재생산되어야한다. 여성과남성은젠더평등이라는목표에있어큰 걸음을내디뎠다. 그리고자유를향한이러한전진은더멀리나갈힘을줄것이다. 우리는용감하게과거로부터교 훈을얻고, 페미니즘원칙들이우리의공적사적삶의모든영역을아우를미래를위해노력할것이다. 페미니즘정 치의목표는지배를종식하여우리가있는그대로자기자신으로살아가게끔우리를해방하는것이다. 얼마든지 정의를사랑하고, 평화로운삶을누릴수있도록말이다. 페미니즘은모두를위한것이다.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벨흐스  
모두를위한페미니즘  
2000년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